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무카이코오 (向井孝)
폭력론노트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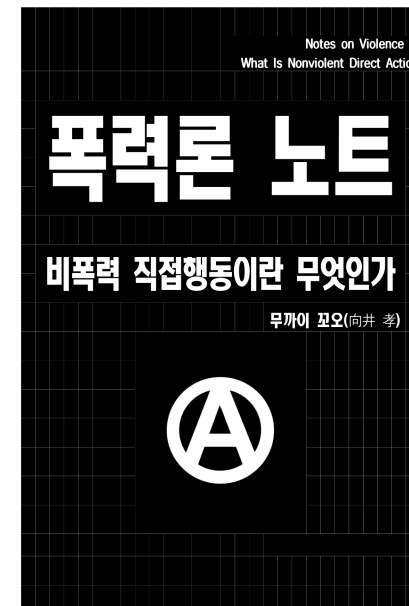
<http://blog.jinbo.net/attach/394/1149567404.pdf>
환경과反차별

kr.theanarchistlibrary.org

폭력론노트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무카이코오 (向井孝)



2002

차례

한국어판을내면서	4
2002 년의유언	5
I. 생명력	7
비폭력과아나키즘	7
생명력으로서의폭력과비폭력	8
II. 폭력이란무엇인가?	10
폭력의정의	10
폭력지배의의사비폭력 (擬似非暴力) 체제화	11
III. 간디의비폭력, 그의미	13
직접행동 — 비폭력의가시화 (可視化)	13
극한 (極限) 상황에서의문제	14
IV. 국가와전쟁	16
권력의본질로서의폭력과그가면	16
오직비전 (非戰) 밖에없다!	17
베이유의전쟁론	18
V. 비폭력이란무엇인가	20
비폭력과사비폭력체제	20
비폭력의인민성	20
VI. 의사비폭력체제와민주주의	22
민주주의라는의사비폭력체제화	22
의사비폭력과싸움	23
VII. 게릴라, 인민성의문제	25
게릴라, 그의미와행방	25
사파티스타가시사하는것	27
‘폭력단’의의미	28

(ㅎ) 의표현으로는, “오늘죽었다고해도놀라지않을”만큼높은무까이선생은 승리를얘기하지않는다. “저도저도끝내지지않는다”고말한다. 진곳에서기어오르고기어오른인민의역사가지금우리가서있는지금이자리인것이다.

비폭력직접행동은지금의이자리에서우리가우리자신을어떻게볼것인가의 문제라고생각한다. 잃어버렸다는것도잊어버린, 자신에대한신뢰를되찾고우리에게힘이있다는것을새기면서단단하게사랑하고저항해야겠다 (늘다짐이군).

— 도라지 —

평화학의창시자라불리는요한갈통은, 직접적폭력 (전쟁, 강간등), 구조적 폭력 (빈곤, 환경파괴등), 문화적폭력 (군대, 사형제도등) 이라는개념을통해전쟁등의직접적폭력이없는상태를소극적평화, 사회구조적폭력까지없는상태를 적극적평화라고이야기함으로써, 현사회에대해보다넓은인식구조와실천의방향성을제공해주었다.

이번소책자의무까이선생은현사회를‘의사비폭력체제’라고적극적으로인식하는것과그의사비폭력체제‘아래’에서의‘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삶 ☒ 실천의 방향성을제공해주었다. 짧고쉬운글속에서, 그의미는더넓고깊은무게로다가왔다.

개인적으로환경이라는문제를통해세계를새롭게인식할수있었으며, 나아가평화는더한층폭넓은인식의지평을열어주었다. 그리고이번의사비폭력체제와그체제아래에서의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개념은, 지금까지의인식을더욱명쾌하게, 새로운버전으로포맷할수있는인식과실천의계기가되었다.

최근, 이라크인간방패의소식을접하면서, 동시에아직까지도계속되고있는팔레스타인의인간탄알, 인간폭탄의심정도함께생각해본다. 직접적폭력, 사회구조적폭력이없는사회, 더나아가의사비폭력체제의극복이라는과제는우리모두의몫일것이다. 자발적개인과그에근거한동아리들의‘비폭력직접행동’이, 이체제에대한끊임없는저항과투쟁의방법론이라는것을공감하며, 이글의일독, 또일독을거듭권한다.

— 빵돌이 —

한국어판편집후기

非戰, 『환경과反차별』 5 호에서예고한무까이꼬오 (向井孝) 선생의 『폭력론노트 —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를 『환경과反차별』 소책자시리즈 1 호로간행하게되었다. 7 년쯤전부터한글번역판을내려고무척애를썼지만, 뜻대로되지않다가 4 년전에전면적인개작을생각하고있다는무까이선생의말씀을듣고기다렸던것이다. 그게 2002 년 12 월 15 일책으로나오자마자나까지마 마사까즈 (中島雅一) 씨는서울에오는인편에그책을직접보내왔다. 그리고우리 편집동인 4 사람은각각역할을분담해서일을했다. 번역하는일, 활자체로옮기는 일, 말투를고치고다듬고……, 한데모여서토론하기를네차례쯤했나보다.

그리고무까이꼬오선생은 「한국판출간에즈음해서」라는글을직접써보내 주었다. 우리나라로여든네살의할아버지가최근에부쩍건강이나빠졌는데도글 을써보낸것이다. 더구나한국판 15 권을돈을내고사겠다는말까지했다. 그는가난한분이다. 고마운일이다. 남들은나를아나키스트라고부른다는말속에서그의 아나키스트로서의진면목을찾아볼수있다.

또하나, 「黒 La Nigreco」의간행동인무까이꼬오 (向井孝), 미즈따후우 (水田ふう), 나까지마 마사까즈 (中島雅一) 의약력을각각보내왔다.

미국의국가폭력이전쟁으로세계를지배하고있는 21 세기초에무까이꼬오 의 「폭력론노트」는세계인민의지침서가되고아올러이땅의보통시민들의길라잡이가될것을바라면서……

— (ㅎ) —

번역된원고를타이핑하면서“와, 바로이거야”하고가슴으로느꼈던그감정이 아직도생생하다. 또, 그러하기에, 이작업은내내즐거움이었다. 친구들과과역할을 나누어함께일한이공동작업기간은내삶에특별한의미를가지는동시에“일상적 인것”이되어버렸다.

미치광이부시와또, 앞으로도계속나올제 2 의부시에맞서는저항은, 즉각적 인비폭력직접행동뿐만아니라눈에보이지않는저항으로서의우리의일상적삶이 되어야한다고확신한다.

— 등대 2 —

그동안복권에투자하지않고모아두었던내행운들이드디어한꺼번에빛을보 게된것같다. 무척기쁘다. 널모르면책이되어나온다고생각하니소풍전날밤처럼 설레고불안하다. 그리고처음원고를받아서읽었을때부터함께일하고이렇게끝 을맺게되기까지가무슨드라마인냥한장면한장면떠오른다. 특히, 노트에적어놓 았던 (ㅎ) 의재미난말과상계동까지“삼백리”길을이틀이멀다하고드나든고마움 은쉬이잊히지않을것같다.

테러에대하여	29
------------------	----

VIII.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30

생산노동 · 창조 · 유희	30
자치와관리	31
간디의소금행진	31

IX. 비폭력직접행동, 몇가지문제 34

소수파의노동운동	34
공동체등의의미	35
라르자크공동체의보배, 기타	37

X. 한사람의무리 (群) 로 40

생산점 · 생활점과시민노동자	40
시민노동자에서잡민 (雜民) 으로	41

부록 1. 지극히사적 ☒ 탈선적으로 44

입장과관계	44
약한자의폭력과비폭력	44
조직과그내부공격성	45
폭력의변질과전환	45
의사비폭력체제의현실	46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46
역사와비폭력행동, 여자들	48

부록 2. 테러를초월하는것 50

문제제기 1 — (오끼나와)	50
문제제기 2 — (테러)	51
절대상황과테러	52
비폭력직접행동이란	54

부록 3. 폭력론노트보충 [補遺] 57

해설을대신해서 - 내게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59

편집후기	68
「黒」간행동인 (刊行同人) 소개	69
한국어판편집후기	70

한국어판을내면서

한국어판을내면서일본판에서빠뜨렸던것을한가지첨가하겠다.

그것은, 지금일본에서는완전히방치되어논의조차없는일이지만, 생각하건대이웃나라한국이나기타여러나라에서병역해당연령의젊은이들의절실한, 쉽게기피할수도없어구체적으로대응할수밖에없는병역문제가현실적인삶의문제라고하겠다.

*

그러니까벌써 2 년쯤전의일이었던듯한데나는한국청년봉어의얘기를들었던것이다. 봉어군은자기의징병검사를앞두고징병거부를선언하고싸우고있다고했다. 나는큰충격을받았다. 며칠동안멍하니, 아무일도손에잡지못한채, 사고정지상태에빠졌었다. 결코허풍을떠는게아니다. 그후부터나는어쩌다가‘한국’이라는말을들으면우선반사적으로생각하는것은‘징병제도’라는말이다.

*

봉어군의일이없었다면아마도나는‘일본의평화헌법’에도취해서징병이니병역이니군대니하는것을전혀생각하지않고살고있었을것이다. 대부분의일본사람이그런것처럼 (국가是这样게모든일에서우리들을국민으로만들었다!).

나도사실베트남반전운동이들끓었을때 — 1960 년대 — 에는‘JATEC(탈주병원조조직)’에조금관계했었는데도망나온미국군인 [그중에는망명을요구한김동희 (金東希)? 라는이름을가진군인이있었다는것을기억한다] 을도와주거나했는데매년 12 월 1 일로정한 WRI 의 Prisoner’s Day 때는우리에게온세계각국의 CO(Conscience Objection, 양심적병역거부자) 명단에있는수감자수백명에게격려카드를차입해주기도했다 (이스라엘형무소에 50 여명이감혀있었다. 너무많아서지금도기억한다). 또휴일에외출한자위대원들에게반전빠라를살포하는일을한적도있었다.

그러다가베트남전쟁이끝나자어느덧뚝뚝어졌는데, 생각하니그게벌써 30 년이라는망각의세월이흘러갔으며이제는그러한공백조차자각하지않는일상생활에떠밀려오다가, 그게그러니까봉어군의얘기를듣고이제새삼스레깜짝놀라게되었으니내가불감증에걸렸던것이아닌지모르겠다.

*

각설하고이쯤해서단박에결론으로비약한다. ‘폭력논트’를들출것도없이우리들의일상은항상‘의사비폭력체제’에존재한다는것이다. 이경우 (일본에서는) 평화헌법에도취되어지금은징병제가면제된다는것을전혀자각하지않고

는지금! 우리들의삶은, 우리들의생명력은그들에게도대체무엇으로대치할수있는가?

그리고그런것들에대해서우리들나름의불완전한대답, 그것말고무엇이있겠는가! 이런우리들의불굴의각오와확신을가지고이팜플렛을간행한다.

나카지마마사카즈 (中島雅一)

「黒」 간행동인 (刊行同人) 소개

무카이코오 (向井孝)

1920 년토오쿄오출생. 1954 년 WRI — Japan 서기를자칭하고반전 (反戰), 반차별 (反差別), 반정치 (反政治), 비폭력직접행동을주장하고활동해왔다. 반천황제 (反天皇制) 빠라, 스티카, 신문등이빌미가되어모두 5 차례의가택수사를받았다. 시집『向井孝の詩』, 저서『山鹿泰治 人とその生涯 — アナキズムとエスぺ란토 (야마가타이지 山鹿泰治 사람과그생애 — 아나키즘과에스페란토)』, 팜플렛『ハウツービル爆弾 (빠라폭탄제조법)』 그밖에다수. 사람들로부터아나키스트라는말을듣는다.

미즈따후우 (水田ふう)

1947 년돗토리현 (鳥取縣) 요나고시 (米子市) 에서출생. 고교졸업후‘베트남에평화를! 국민운동 (ベ平連)’을벌이다. 69 년상경. 「안보거부 100 인위원회」 멤버로활동하고, 요코따기지 (横田基地) 반대운동으로연좌데모, 전단살포를 4 년간계속했다. 74 년오사카로이주. 그후부터무카이코오 (向井孝) 와함께반전, 반원발 (反原発), 반천황제, 감옥문제, 사형제반대등주로여성그룹으로활동하면서「WRI 뉴스」, 「비폭력활동 (非暴力活動)」, 「たんぼぼ新聞 (민들레신문, 감옥재소자에게보내는뉴스지)」를발행했다. 저서『エエジヤナイカ, 花のゲリラ戦記 (종잡아, 꽃구경하면서펼치는게릴라전이야기)』 (向井孝 水田ふう共著). 『風』 발행.

나카지마마사카즈 (中島雅一)

1967 년토오쿄오에서출생. 1982 년부터반핵, 반천황제운동을시작하고그이후비당파행동그룹에참가했다. 「Anarchist independent Review(1 ~ 10 호)」 발행. 「黒, La Nigredo」 간행동인, 토오쿄오의아나키스트, 아나코 山 平크스연합, Black Flag Collective 멤버, 편집자로『となりに脱走兵がいた時代 — JATEC, ある市民運動の記録 (이웃에탈주병이있던시대 — JATEC(탈주병원조조직), 어느시민운동의기록)』 (思想の科學社) 등등.

1982 년에아나키즘을만난후부터, 아나키스트로서의생활태도와사상을, 일생을걸고실천하려고생각하면서살아왔다. 그러나실상을돌아보면그저부끄러울뿐이다.

것같은것을 ④ 자기가좋아하는방법으로한다 — 는것. 그러한당연하고평범한 나날의삶이바로비폭력직접행동인것이다.

언젠가‘치매’를‘힘’으로하면‘그저치매’일뿐이다 — 라는말을들은적이있는데, 나는그얘기를들으면서금방‘치매’를‘바보’로바꿔서‘그렇지, 그렇다’하고끄덕끄덕했다. 그런거라고생각한다.

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것은우리들의나날, 매일매일의무의식적인삶을“폭(暴) 이아닌 (非) 힘 (力)”즉, 생명력으로자기의‘힘’으로적극적으로자각하는일이다. 그것을새삼깨달음으로써자신이변해간다면…… 그렇게되면세상이조금 변할지…… 도모른다.

편집후기

1999 년시애틀에서아나키스트들이스타벅스나나이키등의유리창을파괴했다. 이에대해서“물건을깨는것은폭력이다”, “물건쪼개는것은폭력이아니다”, “오히려상징적으로물건을깨는것은좋은일이다”하는논쟁이있었다. 이것은운동에서비폭력이표방되면언제나제기되는논쟁이라고생각한다. 그러나현상적으로나타난것만으로‘비폭력’이다‘폭력’이다’하는따위의논쟁은전적으로무의미하다.

비폭력직접행동이란행동의양식만을말하는것이아니다.

사람들의자율적생활과인간의자유와존엄의박탈에대치하는생명력에서나오는것이기때문에그야말로그것은비폭력과반드시일체를이루는것이다.

이책은『현대폭력론노트 —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自由連合社, 1970) 의개정판이다. 구판은신좌익운동이무장과군사적인경향을일층강화시키는시대상황에서간행되었지만, 이번에는“테러에도전쟁에도반대”라는슬로건이의미하는, 우리들의주장과는어디까지나거꾸로나가는‘비폭력’이란연하는시대에간행하게되었다.

작년가을이후우리들은앞에제기된이상한풍경은이책을어디까지나현재진행형으로간행할것을요구했다.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체첸, 이라크…… 스스로가테러의원인인커다란정부와전쟁국가군이‘반테러’를내걸고사람들을죽음으로몰아넣고있는지금! 그리고사람들의자율적인생활 ■ 자치관리를가능하게하는조건을기반에서부터파괴하는국제금융자본과기업이전세계의사람들에게더욱다가서고있는지금! 전쟁의이편에서, 풍요로운의사비폭력체제내에서, 자율적인생활을가능하게하는것과반대되는조건을갖추는데사회전체가스스로그들과한통속이되고있

살아가고있는데 (한국에서는) 징병제도가마치당연한것처럼존재한다. 붕어군은이런상황에 (한국과일본) 돌맹이를던졌던것이다. 다시말하면그것이오히려특별하고이상한일이되고말았는데, 이것은일상에서비일상성을의미하는것이다. 그리고일본에서는평화헌법도취나징병제불감증이나모두똑같은의사비폭력체제하에서무의식, 무자각으로우리들의의식의토대를이루는사회적구조이다. 그것을밝히는게바로『폭력론노트 —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에서말하려는핵심이라고해도된다. 붕어군의행동은그래서의미가크다.

(부기)

근자에건강이좋지않은탓에짧은글인데도뜻을담아내지 못했다.

2003. 2. 26

무카이코오 (向井孝)

2002 년의유언¹

- 간행의변 -

20 세기를‘전쟁과혁명의세기’라는이가있다. 그렇다면나는 1920 년에태어났으니까내생애는완전히 20 세기안에서살아온것에다가덤으로 21 세기를 맞이하는격이다. 다시말해서거의전부, 일생이 20 세기로끝났다고해도관찰을것 같다.

그런데 9.11 이후에나온게‘테러에도전쟁에도반대’라는그렇듯한, 일단은누구든지반대할수없는슬로건이다.

이것때문에세계의양상은일변했다. 그때까지의사적비폭력자세를취하고있던여러국가는그들이가지는위압적이고압도적인군사력을드러내놓고반테러전쟁을정의라고하면서테러사냥이란명목으로복종을거부하는전세계인민에게선전을포고한것이다. 새로운 21 세기는진실로그러한미국의 1 국지배를선두로한‘반테러전쟁국가와인민과의싸움’의세기로시작되었다고해도좋다. 반테러전쟁을정의라는명목으로세계를지배하려는미국과, 이를추종하는국가들. 그러한입장에서서오늘의세계상황을재정립한다면반테러국가군에대한인민의비폭력직접행동의움직임이바야흐로세계로확대되기시작했다고할수있다. 아니그보다도이제비폭력직접행동밖에없다는것을차츰알아차릴수있게되었다.

다시한번말한다. 20 세기의‘전쟁과혁명’은 21 세기에는반테러전쟁국가들과인민과의대치상황에서시작되었다. 오직비폭력만을말할수밖에없는사람들이새삼스레내세우는것이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것을, 지금처럼강력하고명확

¹ 이책자에별지형식으로덧붙여진글임.

하게 얘기해야 할 때는 없었다. 이것이 『현대폭력론노트』 개정판을 간행하게 된 이유이다.

2002. 12. 13 무카이코오 (向井孝)

그렇기 때문에 비폭력직접행동은 이를테면 인간방패나 연좌시위나 헝가스트 라이크 (단식투쟁) 나드러눅기 [Die in] 등 기타 이러저러한 항의행동의 스타일 이나 이른바 비폭력적인 전술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지배자의 의사 비폭력체제 하에서 송두리째 뺏겨 버린 생명력을 하나하나 탈환할 것! 국민의 ‘생 (生)’에서 자기 자신의 개 (個) 의 ‘생 (生)’을 되찾자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나날의 삶속에서 ‘비폭력직접행동’을 탈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국가’, ‘반자본주의’, ‘비폭력직접행동’이라 해도 구름 잡는 얘기니까, 적 (敵) 들은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금방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다. 우리를 압도 하는 국가폭력과, 누군가 말했듯이 ‘안락’하고 또는 ‘정체불명의 전체주의’ 하에서 이것저것 모두가 어둠속에 빨려 들어갈 것 같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삶을 그만둘 수는 없다. 그만둘 수 없는 이상 그때그때 자기가 우연히 부딪친 문제에 덩벼 들어 움켜잡고, 저항도 하고, 패스도 하고, 찌글어지고, 사랑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도 하고, 놀고, 전단한장만들기도 하고 등…… 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

여기까지 쓰고 읽어보니 까뭇가 맥락도 없이 똑같은 말을 몇 번씩 되풀이했다. 게다가 내가 생각하는 비폭력직접행동이라지만, 무কা이상이 쓴 것이다. 함께 살면서 애기로 들은 것을 그냥 되풀이할 뿐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등사판으로 출판한 『폭력론노트 — 비폭력직접행동이란 무엇인가』를 오래간만에 읽어보았지만 용어도 그대로, 완전히 베낀 것이다. 그렇지, 그렇구 말구. 아직 독자적인 나의 비폭력직접행동이라고 쓸 수 없다. 그렇지만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다. 아까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을 지지, 지원하고……’라고 썼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다. 그들이 체포됐을 때 무কা이상은 금방 지지·지원하는 내용의 글을 썼지만 나는 “구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을 지지하지는 못한다”고 해서 무কা이상과 울면서 1주일이나 싸웠을 정도였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무কা이상의 『폭력론노트』를 되풀이해서 읽었다. 벌써 30 년 가까이 된 일이다. 읽고 ‘눈을 덮고 있던 비늘’이 여간 해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개인의 ‘폭력’은 생명력의 일부분이라는 데를 발견하고 무엇인가 나서는 크게 해방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알았다는 기분으로 (아마도 조금하게 결론짓고) 어느 사이에 ‘비폭력’에 구애받지 않는 비폭력주의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폭력론노트』가 ‘눈에 비늘’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고작 최근 1~2 년이다. 그러나 지금 전세계가 ‘전쟁의 구름’으로 뒤덮혀 버린 ‘상황에 한숨만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는 ‘비폭력직접행동’ 밖에 없고, 그것뿐이라고 새삼 강하게 말하겠다.

★

결론이 될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의 결론이다. 내게 ‘비폭력직접행동’이란, 지금 그때그때의 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②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③ 할 수 있을

을했고나는이말에다시화가나고이해도못했다. 내가비폭력주의가된것은간디도, 킹도무관하다. 싸움질할때마다어머니에게상대가폭력을휘둘렀다고해서폭력으로양강음하면너도똑같은거다라는말을듣고자랐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

그렇기때문에나의‘비폭력주의’는내안에있는‘폭력성’을사실은부당하게가뒀두고부정한것뿐이었다. 그래서오히려완고하게편협하고답답한사람이되었다. 간디를제대로읽은적이없었지만역시비폭력이라고하면인격이높고, 깨끗하고, 옹고, 금욕적이고, 현미가주식이고등등…… 으로생각했었다. 그래서좋다하고 1 주일단식을한적이있었다. 바보처럼. 비폭력을정신수양처럼생각했던것이다. 그런것을해도나는아무것도변하지않았다. 조금도마음편하게되지않았다. 무엇보다도사랑과연애를금지당한날은난살아갈수없을것이고…….

‘비폭력’하면아무래도간디를말해야한다. 그러나비폭력도, 간디도오해를먼치못했다고생각한다. 전쟁전교과서에서권력에종지않은사람이하나하나지워졌는데도간디만은마지막까지남아있었던것같다. ‘비폭력’은‘무저항’으로번역되었기때문에권력으로서조금도무섭지않았던것이다. 운동쪽에서도똑같이 ‘혁명’은폭력이고, ‘비폭력’같은것은문제도되지않았을뿐더러엄청나게경멸당했었다. 그러던운동이이제는‘비폭력’을말하면서‘반테러’를말하기시작했다면 ‘비폭력’을아직도오해하고있다는것이다.

★

9·11 이후미국에서는존레논의 「Imagine」 이라는노래를내보내는것을자속했다고한다. ‘상상해봐요’라는가사가워낙고해서. 그렇지만‘국가없으면’이라는말, 지금상상할수있을까.

아니지. 상상할수있지. 예를들면한신아와지⁹ 대지진(阪神神戸淡路大地震) 때행정(行政) 의손길이미치기전까지모두가빠르게아무런말이없어도, 자주적으로활동을시작했다. 지금무엇이필요하고무엇을하지않으면안되는가. 그래서자기가할수있는것은자기가직접한다. 자신들이직접사람들에게호소한다. “직접적으로” — 이것이야말로‘비폭력직접행동’이다. 행정이개입하면서그러한‘직접’은‘간접’이되었다. 행정같은것이없는편이훨씬빠르고쉽고확실하다는것을, 그순간그장소에있었던사람들은진실로느끼지않았을까.

‘비폭력직접행동’의근원적의미는, 자기들이필요한것을자기들스스로가직접문화나사업이나놀이로창출하는상황과행위를말한다. 그것은몇날부터사람들이일군나날의삶속에있다. 그런저리에서보통사람들이별다를게없이살아왔다. 그이외에는없는, 일상의삶자체가가지고있던‘힘’을자기의것이라고분명히자각했다는것. 지금은이것저것모두국가·기업에빼앗기고반대로국가·기업의덕분이라고하지만그것이야말로주객의전도인것이다. 그것을그야말로뒤집지않으면안된다고생각한다.

⁹ 오오사카 · 코오베 · 아와지를일컬음.

I . 생명력

비폭력과아나키즘

인민의저항은반드시지배자의폭력적억압에부딪친다. 그래서지배권력에대한항쟁은결국폭력적대결로발전하게된다. 이러한논리의귀결은자위를위해서 — 독립을위해서 — 해방을위해서 — 혁명을위해서 — 폭동 · 봉기 · 게릴라 · 내란으로나타나는인민의대항폭력■군사무장을당한것으로만든다.

그러나지금우리들이당면한 21 세기, 특히 9·11 이후의세계가명백하게보여준시대상황과질(質) 은과거와명확하게다르다. ‘테러’에대해서압도적장비를구사해서반테러전쟁을일으키는큰정부와전쟁국가군(戰爭國家群) 의출현과, 전쟁이라는재앙을만들어내는폭력기구로서의국가에어떻게대항하는가, 이모든문제를집약한것이우리들의전면에무겁게내걸려있다. 따라서비전(非戰) 을주장하고테러의의미를묻는것은, 국가권력에대응할때피아(彼我) 의폭력, 그자체의본질에대하고찰을하지않을수없게한다.

먼저결론부터말하면, 그것은 1989 년이후동유럽국가나소비에트러시아가허망하게붕괴함으로써남겨놓은 20 세기의교훈 — 사회주의나민주주의를표방하면서, 더구나폭력이이끌어간국가나조직은그스스로공포그자체인권력으로변한다. 그러한폭력적강권은반드시반혁명을가져올수밖에없다 — 을역사로마음에새기면서새삼새로운우리들의투쟁 — 비폭력직접행동 — 을발견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아나키스트가비폭력을주장하는것은특별히새로운일은아니다. 그러나흔히일부의입장에그치고때로는경시되기도했다. 아직까지도아나키스트가폭탄의전설에둘러싸여져있는것은‘직접행동’을개인의생명그자체로구현하지않으면안되었던시대상황과도관련이있다. 그것은아나키즘안에있는비폭력직접행동에의본질지향이오히려고립된개인을부추겨서대극적(對極的) 폭력 — 폭력에대항하는정반대의폭력 — 즉반폭력(反暴力) 을향해서돌진하게하는역설적전화라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그러한전화의의미를밝혀내지못하고또논리의맥락을스스로도 잃게됨으로써아나키즘은한때보통사람들과연대하지못하면서수십년의침체를면치못했던것이다.

일본에서비폭력사상은‘무저항’, ‘불복종주의’라고번역되면서종교적인신조(信條) 쪽으로받아들여져오랫동안그적극적의미가묻혀있었다. 그러나

WRI(War Resisters'International —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가“비폭력적 접행동이야말로인민고유의원리이고방법이다”라고표명했고, 영국의 100인위원회가“비폭력적접행동을투쟁의기조로한다”고선언한바와같이, 1960년대에들어와비폭력사상은각지역인민의투쟁에새로운시야를열어젖히면서마침내이나라에서도그적극적의미를논하게되었다.

이노트는최근조금씩안이하게논의되는비폭력과비폭력적접행동의내용에대한오해, 유행(流行)에대해서아나키즘의입장에서, 특히비폭력과직접행동을나눌수없는일체로결합시켜파악하고자한다. 이것은또우리들인민만이갖는힘으로서, 나아가저항의원리이자방법으로서비폭력적접행동에새로운관점을시사하는것이되어야만할것이다.

우리들은현재, 이미어떠한체제와기구를파괴해야하는지를충분히알고있다. 그러나무엇을그것에대체해야하는지를잘모른채, 여전히구태의연한투쟁방법을쫓아가고있다. 비폭력적접행동은과연권력의거대한폭력에대항하는결정적인것이될수있는가? 이에대한실증은아직까지도알수없는미래에존재한다고밖에할수없다. 그것은지금까지의투쟁의차원과질을그뿌리에서부터바꾸는것과같은 — 예를들면지금팔레스타인에서행동하는‘인간방패’와같이 — 힘든모색과시험을거치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더나아가서새로운활동의질과형태를창조할수있는지가문제이다. 이러한과정에서어떤때의패배, 어떤때의무력(無力) — 그렇다고인민의폭력적대항이항상유효하고승리했다는것은아니다! — 때문에또다시과거의폭력신앙으로회귀해서는결단코안될것이다. 최근더욱은에 띄게드러나고있는‘반(反) 테러전쟁’은실로그러한위기이다.

생명력으로서의폭력과비폭력

본래폭력도, 비폭력도모두개인의생명력, 힘이다. 이것을무엇보다도먼저, 명확하게말해두고싶다.

생물은태어난다는의식없이어버이로부터생을이어받아, 생명력을발휘해죽을때까지삶을계속하는힘을갖는다. 그리고생명력은폭력과비폭력이라는양극에걸쳐나타난다. 다시말해서, 유아(幼兒) 시에나타나는모친독점욕, 학급이나그룹보스의존재, 크고강한육체를향한동경이나단련, 자기를권위있는사람으로만들고싶은욕망, 권세욕……. 이런것들은욕망의전자(폭력적) 지향이고성실성이나근면, 우애, 그리고생산, 노동, 유희, 창작등으로나타나는일상성의상황이후자(비폭력)이다.

우리들의삶은그것이힘으로존재하는한, 아이가어른이되듯자연스럽게이두측면을왔다갔다하면서개인을만들고사회를만들어간다. 이점에서는이두가지지향은서로모순되지않는다. 오히려노력이나격려, 지속적추구를위한에너지로

그리고 9·11 과그후, 나에게는다점더‘국가’는‘인간’과적대하는관계라는사실이확실해질뿐이다. 국가에도이러저러한것이있어서사형제도를없앤다거나, 망명을인정하고, 난민을받아들이고, 탈주군인을숨겨주고, 복지가충실하다거나그래서더좋은국가를지향해서“모두들투표하자!”는소리가빈번하다. 그렇지만일단전쟁이시작되면국가라는것은반드시우선자거나사람에게전사를강요하는것부터시작한다. 나라를지킨다지만국민을지키는게아니라는것은, ‘오키나와(沖縄)’전투⁸에서너무나뚜렷해졌던게아닌가. 그리고곰곰히생각하니까지금은벌써전사다. 이웃사람을살피보지않고서는본심을얘기할수없게끔돼버렸다.

그런데아직도‘반국가’라니시대에뒤떨어졌다는의견도있다. “권력은악이라고생각할게아니라어떠한권력이면정당화할수있는가를생각해볼것”, 이것이‘21세기적인사고방식’이라는것을최근석간(加藤典洋, 朝日新聞, 2002년 9월 9일)에서읽었다. 나는진짜로화가치밀었다. 이런사람은어떤입장에서누구를보고말하는것인가.

고등학교에들어갔을때『아까하타(赤旗)』를파는동급생에게이끌려서폴라리스참수합반대집회에나가서소련의핵은좋은것이지만미국의핵은나쁘다는말을듣고깜짝놀란일이있었다. 핵폭탄은어떤나라가투하해도그밑에있는사람은모두죽지않는가. 소련의핵폭탄이면죽지않는단말인가. 그런건“아이들도알고있다”고생각했던것이다. 60년대당시는‘침략전쟁’은반대하면서‘혁명전쟁’은지지하던시대였다. 그리고이런전쟁의구분[Variation]은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 미국이도발하는전쟁은‘무한한정의’이고이에반대하는것은모두‘악의축’이란단. ‘정당화할수있는권력’을바라는입장이이세상에존재하는한, 이러한구분은없어지지않을것이다. 9·11 이후지금처럼국가의악과자본주의의악이확실하게보이게된시대는다고생각하는데, 안그런가? 70년대의폭력혁명시대가바뀌고지금모두비폭력을떠들어대고있지만 21세기가돼서도, 아니지, 지금이야말로반국가·반자본주의의비폭력적접행동이라는슬로건이우리들에게는제일결맞는다. 그리고알기쉽다.

*

어! 뭔가자꾸만흥분하고있다. 나는처음에셈란씨에대해나의“비폭력적접행동은무엇인가”에대해서좀써보려고했던것이였다. 이런말이라면 8세, 13세 딸들은커녕아무도들어주지않을것같군…….

내가 8살, 13살때는형제들과싸우느라날이밝고해가저물었는데, 그럴때마다어머니는“아무리상대가나쁘다고하지만너도손을대면너도 똑같다”는꾸중

⁸ 제 2 차대전말기일본은, 미국과이곳에서의전투로시간을벌었다. 천황을살려주면손을들겠다는조건을얻어내기위한시간이었는데, 이로인해오키나와 20 만명, 일본본토에서 100 만명이죽었다.

복싱이나레슬링, 유도, 검도…… (이것도일종의폭력이지만) 힘이대체로같은데일정한룰로개인과개인이대등하게폭력을발휘할수있는스포츠는매우인기있다. 사냥을스포츠라면서즐기는사람조차있다.

★

뭔가같은말을하는것같지만여기서내가하고싶은말은개인의폭력과조직의폭력은전적으로질이다르고똑같이다루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그것을우선확실히해두고싶다.

인간이응애하는소리를내고어머니의뱃속에서태어나는순간부터가르치지않아도젖을먹지않는가. 이것이생명력이라는것인데그것은죽을때까지계속해서살려고하는‘힘’인것이다. 눈앞에장애물이나타나면손으로막는다. 자신을지키기위해서무심코손이나간다. 돌맹이를주어듣기도하고낫을잡기도한다. 이러한‘폭력’은생명력이라고해야한다. 그것은이를테면생산, 노동, 창작, 유희……와같은일상의보편적인삶, ‘비 폭 력 — 폭 (暴) 이아닌 (非) 힘 (力)’과같은것이다. 그리고이러한‘폭력’은본래부터‘비폭력’과따로있는게아닌 — 비폭력직접행동이다.

그런데한쪽폭력은물리적강약에서금방결과가나오기때문에이기려면집단을만들거나어떤게든무력으로강한조직을만들게된다. 그러면서개인의생명력은어느사이엔가변질되고그결과로조직이성립된다.

테러의문제도거기에있다. 처음에는개인의‘테러’였던것이일단조직의전술로쓰면서조직화하는방향으로나가게되면 (지금까지는대개그렇게되었다) 그것은전혀질이다른적 (敵) 과같은것, 말하자면‘조직폭력’으로변질되어버린다. 조직은절대로개인이아니라조직을지키려고한다. 당이나국가나모두그렇다. 베트남사람들의저항하는폭력은미국을몰아낸후에는더욱조직화되어다시사람을억압하는기구로서국가로이어졌던것이다.

★

지금은전혀다르지만, 옛날고교생때나는오다마꼬토 (小田實) 를좋아했는데, 『難死の思想』을읽고잊지못하는구절이었다. 전쟁말기오오사까 (大阪) 시가지에대공습이있어서엄청많은사람이죽었다. 대공습날에이미일본의무조건항복이결정됐는데 8 월 15 일의겨우며칠전이다. 물론살해된사람들은거의모두가비전투원이었다. 전후불탄자리들판에혼자우두커니서서오다마꼬토씨는“이제부터결코, 더는, 국가라는것을신봉하지않겠다”고생각했다고써있었다. 나도그것을읽고나서국가가하는일에대해서는우선의심한다. 더구나몸을바치거나말기거나청원하거나원하기대하거나하는일은하지않겠다고마음에새겼던것이다.

서, 결단, 용기, 인내력으로, 또헌신이나자기희생, 기쁨의향수 (享受) 나창조력의발현에모두불가결한것으로있다.

폭력, 비폭력은양자모두그러한지극히자연스러운힘의발현이다. 그것이육체적인능력으로나타날때스포츠나각종경기가되고옛날의무사도나기사도정신이되고또는아이들싸움등에나타나는더본능적이고단순명쾌한분쟁해결의방법도된다. 그리고이때육체적폭력에따른승패는때로정의 (正義) 로서자기주장을처리하는방법이자해결방법이기도했다.

II. 폭력이란무엇인가?

폭력의정

우리들은폭력을논할때아무래도감성적으로말하게된다. 그래서결국에는논리적모순과혼란에빠져버린다. 우선극히단순하게폭력에대해서정의해두겠다. 폭력이란, 첫째로, 물리적압력의행사이다. 일반적으로이러한요건만으로폭력이라고규정되고통용된다. 이것이폭력론을혼란에빠뜨리는애당초의이유라고하겠다.

둘째로, 가해의지의발동이다. 이를테면길모퉁이에서갑자기사람과부딪쳐서상대를다치게했다고하자. 그때가해원인이된물리적압력은고의성이없기때문에폭력아니다. 가해의지가존재하지않는것이다 (경찰관이나군인개인의적에대한가해는명령이있었기때문이지자기의지가아니다. 그렇다면그때의물리적압력의본질이란무엇인가?).

셋째는, 자기입장의강제나타자의존재를부정하는 — 대화의거부이다. 가령, 죽어가는환자의부탁으로실행하는안락사는, 가해의뜻을갖고있지만폭력일수는없다. 거기에상대방의뜻에반해서또는뜻의여하를무시한강제는존재하지않기때문이다. 가해의뜻이없는것을폭력이라할수있을까? 폭력이란소극적으로는자기방어, 적극적으로는자기주장이타자의존재까지규정하고최종적으로는타자의부정이나거부로나타나는것이다 (그러면경찰이나군인은명령, 즉자기의사가아닌폭력을행사하는장치에불과하다).

이상세가지요건을갖추었을때, 대소강약과관계없이, 그것은폭력이다. 세가지중에하나가빠져도그것이폭력적이라는말은들어도, 결코폭력아니다. 둘째와셋째요건만으로는적어도물리력을띠지않는한폭력은아니며오히려비폭력적인것이라고밖에할수없다. 그리고물리적압력의행사, 가해의지의발동, 자기입장의강제또는타자의부정 — 대화의거부, 이세가지를완전히구비하는것은, 잘생각해보면, 오직개인폭력뿐이다.

폭력을논할때반드시라고할수있을만큼논의가혼란에빠지는것은왜일까. 그것은개인폭력과사회폭력의질적구분을명확하게하지않고단순히폭력이라는말로뭉뚱그리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폭력의결과는그행사(行使)와피행사(被行使)의구분을따지지않고모두개인에게수렴되고환원된다는중요한특질을깨닫지못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 기동대라는조직적폭력장치의발동결과는대원

지못한(하지않는) 채역사에문헌백백천의난바다이스게가틀림없이더많이있을것이다. 그것은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신이그러한형편에있지않다고해서자기의보신(保身) 때문에‘반테러’를부르짖고싶지않다. 보신이나쁘다는것이아니다. 그것도당연한감정이지만그것을감추고그럴듯한‘운동’의슬로건으로깃발을흔드는것이마음에들지않는다. ‘운동’이라는것은대체로다수파를만들려고하니까그렇게들거짓말을한다. 때문에데모는‘반테러’를말하지않으면아무말도할수없다. “두렵다”는슬로건을내걸면된다. ‘테러지지’를말하는것도, “두렵다”고 말하는것도모두똑같이사람의마음아닌가. 애당초부터한사람한사람의마음을한가지슬로건으로정리해버린다는것은도무지할수없는일이니까.

‘운동’이지금까지처럼개인의마음을짓밟는것이라면, 이제오히려한사람한사람고립(孤立) 하는것이중요할지도모른다.

★

옛날 『당했으면보복하라』는산야[山谷]에관한영화를보았다. “당했으면보복하라!”는극단적인말이지만철저하게당한사람은보복할기력도, 그런걸할수있다는상상력도, 용기도없어지게된다. 그래서“당했으면보복하라”가아닌가.

우리들은모두처음부터지고있다. 아주먼옛날부터줄곧당하기만한게아니다. 약한놈이강한놈에게덤벼들어봤자기습공격이라도하지않는한보복하려다가도리어드리게당하는것(여러가지의미에서)이정한이치다. 이것은빠에서무치도록잘알고있다. 예를들면언딘가요세바(寄せ場)에서‘폭동’이일어나서경찰이나거간꾼을해치웠다고해도다음순간에배나되는보복이 기다리고있다.

이러한시대가됐는데도 『미또고우몽(水戸黃門)』⁵이나 『아바렘보우쇼군(暴れん坊將軍)』⁶가인기가있는것은, 검객영화의마지막장면이반드시악당들을처치해주고절대로보복당할걱정이없다는것으로안도감을주니까그렇다. 나도옛날 『히사츠시요깅(必殺仕置人)』⁷을좋아해서재미있게보았었다.

항상당하기만하고울며겨자먹기가될수밖에없을때, 대신보복해줄사람이있으면뒤편박수치고환영한다. “그새끼죽어마땅하지, 오랜동안나쁜짓만했으니까!”하고생각한다. 그러나이러한정의감은또“그런나쁜놈은사형당하는게마땅하지”가되기도한다. 생각해보면그렇게사람은개인의‘폭력’과권력의‘폭력’을뒤섞어버리면서‘폭력’은안돼라고원칙적으로말하지만결코‘폭력’을부정하지않는다. 오히려마음속에서는모두좋아하는게아닌가.

⁵ 일본동북쪽미또(水戸)의, 도쿠가와막부를인민의편에서서용호 〓 지원하는핵심측근가문을일컬음. 평민의옷을입고전국을유랑하면서불의를해결하는암행어사같은역할을함.

⁶ 가령조선시대숙종이옷을바꿔입고암행한것처럼쇼군(장군)이옷을바꿔입고암행함.

⁷ 반드시이기는사형집행인.

9·11에서부시가전세계에“너는미국편에붙을것이나, 테러편에붙을것이나”라고추궁할때나의대답은“테러편에서겠다”였다. 그리고“테러에도전쟁에도반대한다고말하고싶지않다”고「風」² 33호에썼다. 데모의슬로건으로‘테러에도전쟁에도반대’가나왔을때나는‘칼사냥’³이라는말을생각했는데, 현대의‘칼사냥’은권력의명령에의해서가아니라칼을자기가스스로갖다준것이라고생각했다.

그러나왜비폭력주의자가‘테러’를지지하는지광장히당혹하여편지를보낸사람이몇인가있었다. 또“테러에박수치는것은‘비열함’이다”라는말도들었다. 비록‘비열함’이라해도그것은자기의감정이다. 어떤감정에도5푼의혼(魂)⁴이있다. 비열한마음이라고해서숨기거나부정할수는없다. 무심코나오는실토이니까.

속사정과원칙이라는것이있다. 속사정이있어야원칙이있다. 나는속사정이없으면원칙도만들수없고원칙이없으면속사정도나타나지않는다. “테러편에선다”는것은그렇기때문에나의감정에서나오는속사정이고원칙이다.

그런데나의비폭력직접행동에서보면, 지금까지도지금부터도테러에는반대지만때와장소와상황과누구에게보고하는말인가에따라표현방법은달라진다. 그것은자기가악한자이고악자의편에서는것이당연하다는‘입장’의문제이기때문이다. 따라서나는9·11때미국을두고세상을향해서“테러편에선다”고말한것을취소할생각은없다. 베트남반전을위해무기를잡고싸우는사람들을응원한것도, 폭탄을던진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사람을지지·지원한것도, 이번에테러편에선다고한것도, 지금현재살해당하는사람들, 그리고권력에대해서싸우는사람들편에선다(서고싶다)는것이나의제일의입장이고, 속사정이고, 원칙이기때문이다.

9·11이후테러리스트의형태는확변해버렸지만테러리스트라고하면나는안중근이나난바다이스케(難波大助), 나카하마테스(中浜哲)나와다규우타로오(和田久太郎)를생각한다. 그들은누구와도상의하지않고, 누구의명령도받지않고, 자기혼자의결의로, 그이외에길이없는극한상황에서자기의생명을걸고천황이나육군대장의생명을노렸다.

나는여간해서이런일을안하지만그래도그들의생각, 심정은잘안다. 테러는, 하고싶은마미있더라도우선무기가있어야한다. 자금마련도하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무엇보다도기회가오지않으면할수없다. 때를맞춰서우연이거듭되어야비로소할수있는것이니까그런것이충분하지않아서호지부지되고테러를실행하

² 미즈타후우의개인지(個人紙)로, 무까이코오등도글을신는다.
³ 일본전국시대때, 각영주간전쟁에서이긴영수측이진영수측의무기를접수해서무장해제시키는것을가리킴
⁴ “한치의벌레도5푼의혼이있다”는일본의속담.

한사람한사람의폭력의집적이다. 그리고그러한개인의육체와정신은개별적으로자기의폭력행사에서그어떤반응을받는다. 한편데모대가입는피해는한사람의향의자피살이거나다른참가자의두부열상, 또는시민의안저출혈이다. 그리고체포되어재판을받는것은반드시개인이고형벌을받는것도그개인이자. 폭력장치인집단적사회조직은폭력의결과로직접적타격을받지는않는다.

그렇다면지금우리들은생명력과폭력, 폭력과폭력적, 개인폭력과사회(조직) 폭력, 이런것들을흔히뒤섞어서다루고있는것이다. 그래서우선폭력의정의를엄격하게바로잡지않으면안된다.

오해를무릅쓰고단정하다면, 개인폭력은사회적으로거의문제가되지않는다. 그것은이를테면, 우리들이폭력범죄에마주치게되는것은아주드문일이고우연한재앙과같다. 그리고그러한폭력은명백히반사회적이기때문에고립되어지거나동조자를얻을수없으며결국에는소외되어사회생활자로서의일상을지속하지못한다. 기껏해야개인폭력은, 결국에는자기파멸직전까지이르고마는일시적인현상밖에되지않는다. 또, 현실사회에서개인의자의적폭력이횡행하는것은지배자의권위를실추시키고나아가그존재기반을위태롭게하기때문에, 즉시경찰력이발동된다. 그렇게개인폭력은위법으로단속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폭력이일상적인화제가되고신변의문제로느껴지는것은왜일까. 그것은폭력의결과가모두개인에게수렴환원되기때문이다. 비록그것이한개인의피해나가해일지라도, 자신의생사에관한직접적인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개인폭력은사회적대응으로써결국극복된다는귀결에도불구하고흔히우리들이일상생활에서아직도폭력을두려워하는것은첫째로, 폭력에대한대항수단을우리들자신이행사할수없기때문에, 둘째로, 우리들이스스로폭력에대항하는용기를완전히잃었기때문이다. 그것은우리들대신에국가가폭력을단속함으로써우리에게서일체의대항수단을금지하고한편에서우리들은가축처럼겁이많고유순해져서태고때부터많은사람들이가지고있던, 들짐승에게맨손으로덤벼들던용기를이제갖지못한다는것이다.

좀더얘기한다면, 이미우리들앞에는“폭력은안된다”는일종의윤리감이통용되고있는것이다. 이때문에무조건폭력을옹호하는일은드물다. 그러나누구든“언제어느때나폭력은반드시악인가?”라는질문을받았을때그에대한긍정은거의모두자신을잃는다. 폭력이필요하다고느끼는심정을비폭력주의자조차도말할수없을것이다.

폭력지배의의사비폭력(擬似非暴力) 체제화

폭력이라고할때우리들은극히물리적인것, 예를들면매스컴이대서특필하는범죄에다일상생활에서드물게맞닥뜨리는싸움질이나금품갈취의상행등을보

서우선생각하고나에게미칠지도모르는감각적인공포로그것을상기한다(테러도그러한의미에서신변가까이느끼는공포에대한상상력이다). 또예를들면, 가정내폭력, 유아학대등당사자에게도대단히심각하고게다가쉽지않은문제로다루어지는것도있다. 그러나그런것의본질은인간관계의사회병리적인갈등문제에원인이있기때문에폭력과비폭력의문제로다루어야할필요는없을것이다. 폭력의문제로다루게되면도리어쉽다. 상대한사람에대해서세사람, 다섯사람끓어얹히고응징하여단순한약자로만들수있다.

개인폭력의범주는쉽게그해결방법을찾을수있다해도지금우리들의눈앞에 존재하는사회폭력 = 권력의폭력장치의내실(內實)을구체적으로찌르는것은 불가능하다. 그뿐인가잘못하다가는개인폭력과같은차원에서엉뚱하게논하는 착각에빠지게된다. 지금여기서우리들이대상으로삼고자하는것은개인폭력과 는전혀질이다른, 개인폭력의시점에서는간단하게파악할수없는의사비폭력체 제로서존재하는사회폭력장치에대해서다.

사회폭력은우리들의주변, 일상에서폭력으로직접적으로나타나지않고오해 려역으로질서유지장치로서드러나고있다. 게다가사회질서로서일견(一見) 우리들의일상을지키는, 폭력에대한압제자의모습을하고있다. 예를들면, 경찰 ㅅ 군대와같은국가의폭력장치는일반시민에게합법인것, 질서를지키는조직으로 비친다. 현대의폭력의의미와내용을바르게파악하기위해서, 이렇게의사회한사 이비비폭력체제로서의사회폭력, 즉의사비폭력체제를문제시하는데서부터출 발할수밖에없을것이다. 우리들은이것을염두에두고서비폭력의문제로들어가 지않으면안된다.

그리고, 또다른멤버는말한다.

자폭공격을‘분노와증오에불타는종교적광신자가하는것’이라고나는도저히 말하지못하겠다. 나는보았던것이다. 살려달라는절규를무시당한채점점더심해 지는인종근절의억압에의해절망으로떨어지는사람들을. 자폭공격은술한선택 들중의하나로택한저항수단같은게아닌것이다. 어디든자존심을가진사람들은 있다. 자기의존엄성을지키기위해서자폭공격에자진해서나서는사람이없는땅 이그어디에있을까?(2002. 9. 25.)

메일로보내온이런사정을매일읽으면암담해진다. 우리들은이렇게우리를압 도하는국가폭력이 지배하는세계에서살아가고있다. 이에대해서‘폭력적인반항 심’이마음속에서우러나는것은, 사람으로오히려당연한것이아닌가. 그러나폭 력은물리적으로강한자가이긴다. 폭력으로대항하지못한다. 더당한다. 살해당 한다. 돌하나던지면대포로보복당하니까. 그런상황에서사람은거의돌도던지지 못하고충도가지지 못하고“죽이겠다”는말을듣고도발에나간다. 그렇게하지않 으면살아남지못한다. 발에나가계속농작물을거두는게그들의싸움이다. 그런일 상의너무도당연한것을, 나는그들의비폭력직접행동이라부른다. ‘비폭력’이라 는진지한신념을투쟁의장에서만실행하자는것과는좀다르다. 그것은내걸어진 전쟁에이기기위한싸움아니다. 살아있는한지도또저도결코지지않는당연한 우리들의일상 — 삶 — 으로서의비폭력직접행동인것이다.

일본에서 ISM 에참가한청년들의보고에서“폭력으로의비폭력직접행동입 니다”라는표현을들었다. 나에게는그의미가쉽게와닿았다. ‘인간방패’의행동은 팔레스타인사람들의비폭력직접행동으로서의일상 — 삶 — 을조금이나마유지 시키기위해그곳에서함께생활하는비폭력직접행동인것이다. 영국이나아일랜드, 미국그리고이스라엘이나스위스, 이탈리아, 일본에서수백명이넘는사람이 참가했다고한다. 대부분이젊은이들이지만그중에는아버지가스페인혁명에종 군했다는 70 세의여성도있다는것이였다.

그들은방패가되어탱크앞에맨손으로섰다. 농민과함께밭에나갔다. 검문소 에서구급차를통과시키라고군인에게말을건다. 자폭공격자라고지목되어가옥 파괴의표적이된집에서가족들과함께잠을잔다. 방책이나도랑을넘어가는노인 이나아이들곁에있으면서이스라엘군인들의총격에서그야말로인간방패가된다. 이스라엘군은그들이그곳에있기만해도함부로총을쏘지못한다. 거기서어떤 일이일어나고있는지세계에알리는증언자로그들이그곳에입회하고있기때문이다.

국가를초월해서개인이총도없이전쟁상황으로들어가서‘인간방패’가된다. 이런비폭력직접행동을나는지금까지들어본적이없다. 이런사람들이소수나마 있다는것이나에게는빛으로생각된다. 그런데도그들자신이말하는바와같이“지 금은황폐를멈추게할희망을그다지갖지못한다”는것이현실이다. 그러한현실이 어쩔수없는테러를만들고있다.

그리고 “그렇다면 비폭력은 법률과 공합이 맞는군요”라는 말에는 “물론이지……”라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나의 비폭력 직접 행동은 법률과 전혀 공합이 맞지 않는다. 그런 것과 관계가 없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입장과 태도의 차이로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여기서 비폭력이라 해도 썬란씨와 나는 입장이 완전히 반대다.

국가 본질은 ‘폭력’인데도 대의 정치·법률·재판·감옥·경찰·군대, 그런 것을 합법화하는 투표……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인 제도, 폭력을 배경으로 하는 ‘비폭력’이 원칙인 것이다. 이러한 비폭력적 사회를 유지하는 것으로 국가가 성립한다. 그러나 비폭력은 우리들의 비폭력과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환골탈태한 비폭력 이야말로 문제가 되는 것이며 우리들의 생명력인 비폭력 직접 행동을 빼앗아 간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딸들이 내놓은 질문, “그래도 폭력이 필요한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만약에 자기 눈앞에서 폭한에게 애인이나 자기 아이가 습격당하면 순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돌이나 막대기를 들고 대항하지 않는가. 그게 생명력으로서의 폭력이다. 그런데 썬란씨의 대답은 개인의 폭력을 부정하면서 국가나 NATO 의 공습을 부득이한 일이라며 ‘공정’하고 있다.

나는 완전히 그 반대다. 개인은 ‘폭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아니다. 쓸 수 없는 것이다. 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 (또는 조직) 라는 것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

오늘도 팔레스타인에서 비폭력 직접 행동 ‘인간 방패’를 실행하고 있는 국제 연대 운동 (International Solidarity Movement, ISM) 의 참가자에게서 메일이 왔다.

이스라엘 국방군은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에 방책, 벽, 도랑을 설치하고 팔레스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몰수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러 갈 수도, 장사를 하러 갈 수도 없게 된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황폐화된 경제 상태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올리브 수확을 하려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어떤 군인은 “저격하기 쉬우니까”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 사격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탱크를 향해 돌을 던지고, 수박을 팔던 소년은 탱크에 올라타 대포 구멍을 수박으로 틀어막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이스라엘군이 미제 총으로 저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자 폭 공격을 하는 사람이나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미국의 농장 노동자 조합에 공개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무 것도 잃을 게 없게 된 팔레스타인 농민에게 연대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황폐를 멈추게 할 희망을 그다지 갖지 못한 실정입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군의 폭력은 더욱 더 강화되고…… (2002. 8. 20.)

III. 간디의 비폭력, 그 의미

직접 행동 — 비폭력의 가시화 (可視化)

상대방이 덤벼들어 때리면 반격의 자세를 취한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으면 되받아 친다. 이것이 상대의 폭력에 대한 일반적이고 아주 흔한 응수이다. 이러한 행위는 본능적으로 누구든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적 대응이 자연스러운 자세이다. 여기에 선도, 악도 없다.

그런데 대응 행위는 이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마하트마 간디는 폭력적 식민지 지배에 대한 항의로서 폭력에 대해 완전히 반대의 입장, 즉 비폭력의 입장에서 “불복종”, “무저항”이라는 대응 행위를 제창하고 이것을 실천했다. 그것은 상대의 폭력을 방어하지도 않고 달아나지도 않으므로 강한 신념과 적극적인 지를 나타낸 것이다. 무저항의 저항이라고 해야 할 간디의 행위는,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가시화 (可視化) 함으로써 비폭력에 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무저항에는 직접 상대에 대응하는, 눈에 보이는 행위는 없다. 있는 것은 폭력에 대한 폭력적 대응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기에 대한 제지에서 비롯된 갈등과, 그러한 갈등에 대한 심리적인 자기 대응이다. 그것이 보고 있던 증언자에게 전해졌을 때 비로소 가시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폭력에 대치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강제력이 아니다. 그것과는 다른 힘이다. 정신적 또는 윤리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비폭력이 불복종이라는 구체적 행위를 매개로 해서 나타남으로써 ‘폭 (暴) 이 아닌 (非) 힘 (力) 이 가시화할 때 — 그러한 가시화도 또 새로운 힘으로 보태지는 비폭력 직접 행동의 출현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시화는, 의식화를 가져온다.

20 세기 초 간디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 비폭력의 의미는 폭력의 부정, 혹은 폭력 행사가 없는 상황을 말하고 비폭력을 바라는 개인의 신조, 윤리, 종교 등이 될 때면 정신주의의 입장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것을 간디나 그 후의 마틴 루터 킹 등이 구체적인 직접 행동의 선두에 섰으로써 비폭력의 의미가 지닌 소극성이 바뀌게 되었다. 폭력에 대항하는 힘으로서의 비폭력의 발견 — 무저항과 불복종이라는 직접 행동의 창조이다!

이렇게 간디의 제창에 의해서 비폭력은 비로소 사람들이 의식하는 힘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기는 그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비폭력은 정신주의, 심정적이고 엄격한 윤리주의를 더 강하게 의미하면서 ‘직접 행동’이 반드시 비폭력과 일

체화, 또는절대적으로따라붙지않으면안된다는중요한지점을거의논의하지않았다. 그보다도무시하는경우가그대로이어져서운동의확대를일부러한정하게되었다. 현재까지도일부에서남아있는비폭력의실천은보통사람이쉽게도달할수없는어떤종류의정신적경지라는오해의주요한이유일것이다. 물론, 이제는비폭력의전술로연좌시위, 데모, 피켓팅등이상식적으로금방상정된다. 그러나이를테면무언(無言) 전화라든가일찍이수상이손을들어버린칭찬전술¹이라든가스토커등물리력의행사를수반하지않는행동도비폭력이다.

확실히비폭력의일면은윤리성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비폭력도또하나의힘이라는점에서본래윤리적인선악의의미를갖는것은아니다. 그것은어디까지나방법이며수단인것이다. 그가목적하고의도하는바에따라폭력, 비폭력이라는서로다른형태의힘이지닌의미가결정되는것이다.

극한 (極限) 상황에서의문제

비폭력에대해서얘기할때반드시제기되는반문이다. 만일에연인이습격을받았을때어떻게하는가. 예를들어목전에서핵버튼을누르려는사람을발견하고서너는구경만하고있을것인가 — 등등의문제이다. 그러나이처럼이미제삼자의개입을용납하지않는초를다투는극한상황에서누가어떻게절대확실하고유효한대응수단을실천할수있을까. 폭력은자기능력이상대를능가할때만유효하고자기가상대보다약할때는폭력도똑같이힘이못된다. 이럴때그장소의당사자만이어떻게대응할지를결정할수밖에, 다른방법이없다. 승패는거기서중요하지않다. 이에대한시비나선악도논외의문제이다. 즉, 이때제삼자의입장에서당사자의입장을상정하고거취를허둥대며폭력이나비폭력이나하고시비선악을논하는것은아무런뜻이없다.

도대체이러한문제설정은첫째그러한상황을전후와의관계에서분리해서제기함으로써, 둘째로그런일은여간해서있을수없다는희박한경우를일반적인예로했다는데서옳지않다. 만약이러한경우에도우리가비폭력적대응을주장한다면, 여간해서없으며또있어서는안될상황때문에미리어떤방법을검토하지않으면안된다. 또항상그런문제에대한대응이정해져있고모든수단이강구된상황이마련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 그러한전제에서그래도또예외의예외로, 즉시적대처밖에별방법이있을수있겠는가. 비폭력이만능의부적일수는없다.

그리고, 다음과같은 — 미국에서 1859 년존브라운이소수의동지와함께무장봉기했다가처형당했을때쉴의철인이자비폭력주의자소로우가말한 — 말을소개하겠다.

해설을대신해서 - 내게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미즈따후우 (水田ふう)

일반적으로‘비폭력’하면‘O’, ‘폭력’은‘X’라는이미지가떠오른다. 그렇지만나는좀다르다고생각한다. 인간이그렇게간단하게둘로나눠질까? 그러나그것이‘폭력’, ‘비폭력’이라는말로표현되면뭔가‘선’대‘악’같이된다.

‘폭력’도‘비폭력’도, 모두개인의마음속에서는하나로연결된것이고어느쪽이나생명력이라고해야하지않을까? 어느쪽이나원초적으로인간이갖고있는힘이다. 생명력이다. 그것에는선이니악이니하는게관련이없다.

일상에서는무의식적으로‘비폭력’으로살아가는개인에게때때로튀어나오는생명력으로서의‘폭력’을, 나는오히려긍정한다. 권력이나세상이그것을테러라고해도완전히부정할수는없다고생각한다. 그것이어떤‘정의’, ‘대의’를명분으로한다해도모든국가와조직의‘폭력’, ‘비폭력’을나는단호하게부정한다. 하기는내가부정한다해도국가는꿈쩍도안하지만.

*

무까이상이이팜플렛에심는원고를쓰기시작했을때 『딸아이와얘기하는비폭력이란무엇인가』¹라는책이나왔다. 나도곧읽어보았지만, 글씨역시다르다. 물론같은데도많지만…… 근본적으로다르다.

나는개인의폭력·비폭력과, 국가또는조직의폭력·비폭력은전혀질이다른것이라고생각한다. 알기쉽게말하면, 전쟁으로나타나는국가의폭력, 그리고대개사회질서나규율로나타나는국가의비폭력과개인의그것을이책은뒤섞어서말하고있다 (대개의사람도그렇다).

자기의 8 세와 13 세의딸에게얘기한것에이런데가있다. “그렇지만폭력이필요한때가있다고생각하지않아?”라는딸의말에서자셈란씨는내가잘못읽은건지모르지만, 독재자밀로세비치를치기위해서 NATO 의‘공습’이필요한것처럼 (나는그렇게읽었다) 쓰고있다 (딸들은이런대답을어떻게이해했을까?).

¹ 다케시타 (竹下) 수상을계속칭찬함으로써결국에는바보로만들어버린사건을가리킴.

¹ 『娘と話す‘非暴力’ってなに』 (책셈란, 現代企劃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로, 다시 말해서 폭력을 저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로서 도메스틱 ☒ 바이올런스 (가정내 폭력) 가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강자 약자의 관계가 아닌 폭력이 전의 문제 — 예를 들면 가부장제나 가족의 구성, 성장기의 환경이나 친구들의 영향 등, 근친애증의 굴절된 인간 관계가 우선 근저에 있어서 그것이 폭력으로 발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에노씨가 말한 “남성성 (男性性) 의 핵에 있는 폭력성 등과 같은 본질주의적인 말 대신에 남성성도 또한 구성된 것이고 따라서 변경 가능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2002. 12. 13 무카이코오 (向井孝)

“노예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가지고 노예 소유자에게 간섭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 라고 말한 존 브라운의 가르침에 나는 찬성한다. 따라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브라운과 같은 방법을 쓰는 사람이나 와도나는 결코 그의 방법이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유냐 죽음 이냐의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 박애주의자보다 노예의 입장을 대변한 캡틴 브라운의 박애주의 편을 들겠다.

IV. 국가와전쟁

오늘날이지구상에살고있는모든인간은국민이라는개념으로분류되고, 등록되고, 지배되고있다. 우리들은이러한표착지없이, 국가의영역밖으로한발자욱도나갈수없고국내에서도갖가지장애에부딪친다. 게다가우리들자신은이러한개념을거의선천적, 운명적으로받아들이고스스로도그렇게부르고이상하게생각하지않는다. 국민이라는개념을성립시키고있는근거는그러한집단안에는전혀존재하지않는다고말한다면그것은놀라마땅한일이다.

예를들면, 똑같은인류의구분개념인인종은그러한분류근거로생물학이있다. 또, 민족이라는개념은문화인류학에그근거를두고있다. 그러나‘국민’은국가를근거로성립되는데도불구하고국가는그구성자인국민의내실성과전혀무관한것으로, 완전히지배자와의관계에서외재적명칭으로성립할뿐이다.

국가가국가일수있는것은우선타국과의관계 — 기타국가로부터의승인 — 에서다. 그기본요건은,

- 1) 일정한영토를갖는다
- 2) 영토내에서생활하고있는인간에대해서타권력의간섭을불허한다
- 3) 그리고지배하는정치권력이존재한다

는데불과하다. 다시말해서, 국가는단순히하나의정치사회적결합형태에불과하거나또는거대한정치단체일뿐이다.

고대, 중세에서국가라고부르던것에서부터근대법치국가에이르기까지국가는항상지배계급의권력기구그자체로존재했다. 국가의주권을장악한권력자의지배와이익을위해서우선존재했다. 평상시, 국민의보호자로자처하고있다가최후에는지배자들은자기들보신을위해서국가조차팔아먹고국민을배신해서도주해버린많은역사는무엇보다도그것을증명하고있다.

권력의본질로서의폭력과그가면

‘부르조아국가의지양’이라는논리를단순히뒤집은것에불과한‘프롤레타리아국가’라는개념이있었다. 국가의지배권력이부르조아에서프롤레타리아로이행한다. 그것은노예제국가에서봉건국가로, 그리고다시자본주의국가로옮겨가는마지막단계에나타난다고했다.

부록 3. 폭력론노트보충 [補遺]¹

일반적으로는‘비폭력행동’이라고하는데여기에서특별히‘비폭력직접행동’이라고한것은무슨이유에서인가. ‘직접’을넣고안넣고에따라대체어디가어떻게다른지나에게묻는다면나는다음과같이대답한다.

아마도현시점에서이두가지내용은종종갈거나또는거의같은것이다. 본질적으로나현상적으로도다른점은없다. 그런데굳이구분하려고하는것은전자가비폭력에대해서좀더자각적이고의식적이고신념적이라는데서‘운동적’이다. 간디주의라고나할까.

그렇다면후자는그러한‘비폭력’에대해서확고한신념이나자각의식이다소희박하다고하기보다, 오히려비폭력이일상행위의당연한연장으로 — 다시말해서생산노동의분배, 향수(享受), 생식(生殖, 노트에서는탈락되었지만여기넣는다), 창조나유희(놀이) 까지포함한일상생활을유지하는것에다름아니다. 따라서본래비폭력직접행동은일반적인일상의영위(살림살이)와연결되는것이기때문에오히려비운동적이고비주의적인것으로존재한다. 이것을인식하고자각하는데서『폭력론노트』에서말하는‘의사비폭력체제’의문제가시작된다는것을말해두겠다.

■ 우에노치즈코(上野千鶴子) 씨가‘여성국제전범법정’과관련해서“어떤행위를범죄화한다는것은무엇이범죄가아니라는것을동시에정의함으로써폭력의일부를범죄화하는것과동시에그밖의범죄를면책한다”고했다. 그리고“어떤폭력이어떤조건에서면책되는가”, “정의로운폭력은있는가, 없는가”자문하고“폭력에는좋은폭력도나쁜폭력도없다. 폭력은폭력이다”라고자답했다².

이러한의견에나는전적으로동의한다. 그것을전제로하면서여기서제기된도메스틱바이올런스(가정내폭력)로나타나는개인폭력에대해서간단히부연하겠다.

노트에서나는개인폭력의문제는폭력그자체로서대응한다면비교적용이하게대처할수있는것으로그이상언급하지않았다. 폭력은강약(強弱)으로결말이난다. 개인에한하면폭력의강도에한계가있다. 그러한물리력으로서의힘에대항하는방법은얼마든지있다. 예를들면압도적인원수의대항력으로상대를크게응징하는등이다.

¹ 「2002년의유언 — 간행의변」 과함께별지형식으로덧붙여진글임.

² 『フェミニズムから見たヒロシマ(페미니즘으로본히로시마)』(家族社, 2002년 9월).

1) 따라서비폭력직접행동은싸움이기는하지만결과로서승패는아니다. 승패에구애되지않는다. 저도또저도결코지지않는데서“살아있는것”또는저항행위이다. 이것이우리들의‘산다’는것을의미화(化)하는비폭력직접행동이다

2) 결코지지않는다는것은, 우리들의일순간과같은‘생애’로써역사를모두책임지는게아니라는것을의미한다. 책임을지지않는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역사에매듭을짓지않은채과거에서이어지는지금, 즉현대사를우리들은살고있다. 그러한무책임한‘적극성’이비폭력직접행동을보편적이고더욱일상화하는것이다.

3) 거기서우리들은우리들(인민)의끝없는, 거의느끼지도못하는‘자유연합성’에의거해서자기가하고싶은일, 할수있을것같은것, 하기쉬운것, 그리고마침눈앞에있어서피할수없는것등에대처해서‘무책임’하게무엇이든하면되는것이다. 한편싫은것은하지않고안되는것은하지않는 — 그것이적극적이면적극적일수록비폭력직접행동인것이다.

4) 물론하려고해도할수없는것이당연히있을것이다(현재의문제는모두이것이라고해도좋다). 이에대해서는똑같은방식으로늘동일한식으로지는게아니라방법을그때그때바꿀것, 다시말해서지는방법을바꿀것, 체념하지않고바꾼방법으로계속대처할수밖에없다. 잠이들려고할때귀찮은파리나모기같은것, 방법을차례차례로조금씩바꾸는, 와글와글떠드는속에서비폭력직접행동을재미거리로즐기는것이다.

확실히토야마씨의말대로현대사는“그앞에서머물지않는상상력과인내심”을요구하고있다. 그것을다른말로하면어떠한절대상황에서도‘승패’에구애받지않고다시권력에맞서는사상이며‘테러’를초월하는방법과사상을제기하는새로운운동의창출이라고할수있다. — 그러나그것은“순하고겁많은”, “예절바른데모, 집회, 게릴라”등기성의투쟁을“부정적매개”로하는데서우선항상같은스타일밖에없는운동방식, 투쟁방식을바꾸는데서시작되지않으면안될것이다.⁸

⁸ 『反戦インターネット情報(반전인터넷정보)』(No. 6. 2000. 6. 1.)에『状況の中の非暴力直接行動(상황에서의비폭력직접행동)』으로실렸음.

그러나 20 세기사회주의국가의행방이현실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거기서는권력의최대강화가실현되었고더구나인민의국가, 인민의권력이라는명분아래반역자를가차없이처단했다. 실로그것은국가체제로서완벽한침묵과죽음의체제를만들어냄으로써스스로붕괴의길을걸었다.

그리고우리들이국가에조금이라도맞서려고할때금방나타나는것은거대한폭력장치를뒤에둔모든권력적구제이며억압이다. 이것은아무리자유나인권을내걸고민주주의를외쳐도, 그것이국가일때는, 그어느국가도다르지않다. 내면적강제, 이른바사회질서로서의심리적 ☒ 정신적지배하에더욱완벽한민주주의라는의사비폭력체제를성립시키면서법의이름으로폭력을행사한다.

이것만이문제가아니다. 국가는항상권익을주장하면서권익의유지와확대를위해서크고작은분쟁을가져온다. 그래서그것을해결하는배경으로반드시군대를필요로한다. 그것은비상시를위한것이아니라오히려평상시에필요하다는게특징이다. 예를들어, 일본의‘분쟁’은대(對) 러시아북방 4 개성구나시리에토프, 대(對) 한국의독도, 대(對) 중국 ☒ 대만의침략열도이고이른바영유권이냐영해문제이다. 그리고대(對) 북조선문제가있다. 이것들은오히려타국과의외교적교섭문제인데도국내여론을부추겨내셔널리즘을빛어내면서전쟁을위한군비증강이라는국내정치문제가된다.

오직비전(非戰) 밖에없다!

여기서전쟁에대해서아무래도언급해야겠다.

내일생동안가장간절한문제가무엇이냐고질문을받으면주저하지않고바로‘전쟁’이라고대답할것이다. 나는 10 살에서 25 살까지, 이른바 15 년전쟁¹, 특히마지막시기인패전까지의수년간은일상성의상실을당연지사료하는, 더할수없이영망진창에다비인간적인나날이었다. 오직파멸과죽음만이있는내일을기다릴수밖에없는생을살았다.

전쟁은절대로안한다!! 이것은지금 70 이넘은사람은그누구나일생애를수없는경험에서우러나는결심이다. 그렇지않다면그는천황가족이거나그들과멀든가깝든관련된입장에있는자들뿐이리라. 그러한전쟁을어느날갑자기시작하더니, 똑같이어느날갑자기자기보신을위해휴전을선언한게천황이었고국가였다. 전쟁, 천황제, 국가는다때부터언제 ☒ 어느때나최대의적이되었다.

그래서인지신헌법이발표되고제 9 조²가명시되었을때도나는이와무관하게나의신조로, 나의맹세로전쟁포기 — 비전(非戰) 이라고마음속에다짐했

¹ 1930 년~45 년.

² 일본의헌법조항으로군대를갖지않고, 전쟁을하지않는다는이른바평화헌법을말함.

던것이다. 이것을구체화한것이 1953 년 WRI(War Resisters'International) JAPAN 에가맹할때부터이다. 나는

WRI 에가입할때다음을서명했다.

- 1) 병역이나군무에일체종사하지않는다
- 2) 군수산업과그것과관련된곳에는취업하지않는다
- 3) 전쟁원인제거를위한활동을계속한다

전쟁을싫어하는것도, 피하는것도, 반대하는것도아니고오직비전 (非戰) 뿐이다. 그런데지금미국과그밖의나라가보유하고있는핵무기의총량은지구전체인구를몇차례나살해할수있을까. 핵무기는언제든지투하되며오직인민살해병기로존재한다. 그뿐만아니라일본에는홋카이도에서큐우슈우까지³ 50 여기의원자력발전소가있다. 당연한얘기지만전쟁이터지면미사일은원자력발전소를노린다. 미사일한발이 100 킬로미터사방을죽음의도시로만든다는것은체르노빌사고에서증명되었다. 이제이만한이유만으로우리들의입장은이러니저러니논의할것이없다. 단호하게비전 (非戰) 이다. 비전의입장이외에있을수없다.

베이유의전쟁론

시몬느베이유가 1933 년에쓴자그마한글 「전쟁에대한고찰」 을읽어주기바란다. 요약해서소개하면,

마르크스는현대의생산양식을노동수단에대한노동자의종속으로규정했다. 그리고또각자본가와그고용노동자에대한투쟁이결국은노동자전체에대한자본가의투쟁으로변한다는것을논증했다. 이와마찬가지로전쟁은결국전투원 (병사) 의전투수단 (장비) 에대한종속으로규정되는것이다.

그리고현대전의진짜주인공인무기는결코소스로가직접전투를하지않고전쟁에나가지않는일부사람들의조직 (권력) 에의해서관리된다. 이러한관리장치는자국의병사, ‘국민’을강제로죽음을의미하는전쟁터로내보내는것말고는전쟁의수단을갖지못한다. 그래서어떤나라의타국가에대한전쟁은곧자국군대에대한국가적군사장치의발동, 다시말해서병사 (국민) 의군사장치에의종속을강요한다. 즉, 어떤전쟁도국가와참모본부의모든장치는무기를잡는연령의자기국민에게전쟁의양상을제공하는것이다.

그리고기계는노동자로부터그들의노동력만을뺏고자본가는해고이외의강제수단을갖지못하는데비해군인은강제로생명을바칠것을요구받는다. 게다가군법의협박하에임무를강제당한다. 전쟁이방위인가, 공격인가, 제국주의적인

우리들은선서한사람리스트를 3 개월마다정부에보내고계획, 동기, 조직등의정보를군에공표한다. 그리고대화와교섭을계속요청하고있다.

선서한사람은소그룹에들어가자가가말은핵폐절 (核廢絶) 행동의종류를결정한다. 연좌도하고봉쇄도하면서군사기지의방책을절단하고원자력잠수함에까지해엄쳐가서장비를파괴하는등등다양하게비폭력직접행동을하고있다.

우리들의행동은특별히용기가있어야하는행동이아니며누구나할수있는일이다. 우리들은자기자신이핵범죄에가담하는것을막기위한행동을사전에미리행할책임과권리가있다.

그러나‘비폭력직접행동’은이런것으로시작해서이런것으로끝나는가. 이러한행동의강조만으로는오해를일으키지않을까……. 끝부분에서‘우리들의행동은특별히용기가있어야하는행동이아니며누구나할수있는일이다’고했지만그것은결코‘누구나할수있는일’이아닐것이다. 굳이말한다면아무것도아닌보통사람, 특별히용기가있는사람이아니더라도마음만먹으면동아리에참가할수있어야한다. 캠프에서공동생활을하고행동계획을세워서훈련함으로써보통사람과다름없는특별한사람이될수있다는것이라고생각한다.

그런의미에서‘훈련의일상화’나‘캠프’는비폭력직접행동의중요한운동과제이다. 그런다음에연령이나체력과기술등의조건을생각해서선택된소수자와다수는소수의역할을협력, 보조, 지원하는등의기타부문을담당한다. 그것이좀간접적관계라고해도서로지지하는한, 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것은변함없다. 즉, 그러한관계에서는호기심이나순간의기분등까지포함한결의나각오뿐만아니라그것에대한‘몽상’까지도, 쉽게실행으로옮길수있는‘방법’이명확해지지않으면안된다. 예를들어‘땀폭파’에서, 우선다이나마이트의입수, 사용방법, 설치시간, 땀의경비, 땀의급소, 하류에대한홍수대책과인적피해등에서부터, 작업분담인가단독결행인가, 그러한것에대한조사, 준비, 훈련에따라이끌어내지는것 (결의) 이어야한다. 여기서새삼‘폭력’의의미가문제가된다. 그리고비폭력직접행동이비로소정치적, 사회적방법으로부상하는것이다.

TP 2000 에서는선서한사람의명단송부, 계획, 동기, 조직의공개, 대화, 교섭의기회를만드는등등 — (이렇게‘예고되는것’은지배권력에게‘짓궂은전화’를하는것과같은질을넘어서비폭력직접행동의특질을잘나타내고있다) — 전략까지포함해서, 강자 (의사비폭력체제또는구조폭력) 에대한약자 (인민) 의비폭력직접행동의일상화이다. 그러나그것은여전히‘절대적상황인식’이라는‘비일상’을면하지못한다 (『7 인의사무라이』 라는영화에서전문전투기술자인무사단은필요하지않게될때떠나간다. 이른바‘직업혁명가’도이래야하지않을까곰곰히생각했다. 그러나비폭력직접행동의경우, 전문적인소수자는매우자연스럽게다수속으로해소될것이다. 그것이비일상화이기도하다).

좀더솔직하게말하면비폭력직접행동은무엇보다도우리들의일상으로이미존재하는일반적인삶, 생활인것이다. 그것을깨달아야한다.

³ 일본은 4 개의주요섬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우슈우) 으로구성되어있는데, 그중북쪽섬홋카이도와남쪽섬큐우슈우를지칭. 즉일본전국이라는의미.

비폭력직접행동이란

메도루마, 토야마씨의글을읽으면서나는 30 년전에국회앞에서베트남반전을호소하면서분신자살한에스페란티스트⁷ 유이추우노신(由比忠之進) 씨를생각했다. 그때유이씨의주머니에있던미국대통령과일본수상에게보내는‘직서(直書)’와볼에타서시커먼누더기가된와이셔츠와상의는지금어떻게되었을까. 나는그때유이씨의시커먼누더기가된와이셔츠를빌려다가히메지(姫路)에서추도모임을한적이있다. 그때“유이씨는다른사람을해치는대신자기를테러함으로써세상에, 우리들에게호소하려고했던것이다”라고말했었다.

예를들면나는홀랑하게완공된거대한댐의잔잔한수면이라든가물을막은제방둑을타고뻗어있는굵은철관을보면서갈고땅을치면서꺼져간반대파사람들을생각한다. 그리고댐의대폭파를한순간꿈에그린다. 그리고나서틀림없이몇사람인가나와같은생각을했을것이라고확신한다. ‘역사’의 100 년, 200 년은그것을위해있으며우리들은그러한역사의흐름속에서‘지금’을살고있다고되돌아본다.

이런것을생각하고있는데이자와코오지(井澤幸治) 씨가 『페민(ふえみん, Femin)』 2000 년 4 월 5 일(2,586 호) 를보내왔다. 비폭력직접행동의구체적예로이신문에실린「원자력잠수함트라이덴트관련시설파괴(비무기화) 행동」에관한평가와감상을쓰라는주문이다. 좀더자세하게기사내용을요약해서추려보면,

「원자력잠수함시설에직접행동」

올라, 엘렌, 앤지세사람은행동계획을세워발언을준비하고등반훈련을하고서고무보트로고이루호(ゴイル湖)를건너갔다. 세사람이도착한시설은, 트라이덴트잠수함이음향과레이더그리고수중탐지기에걸리지않고항해하는방법을조사하기위한곳이었다.

창문으로들어가조사장치전부를호수에집어던져연구실을텅비게하고서배선이나스위치도모두절단했다. 이때의손실은당초수십만파운드로계산되었다.

그녀들은스코틀랜드의형무소에 4 개월간유치된후에 10 월 31 일배심재판소에서무죄판결을받고석방되었다.

이기사에서나는‘준비’나‘훈련’이니하는말에특히주목했다. 그것은그전에 10 년정도에걸쳐서활동을계속한‘그리남코몬의여자들캠프’의역사를이어받은것이틀림없다. 그리고다음‘소(小) 해설문’을보고나서납득했다.

「TP 2000 의활동」

1998 년에서작한이활동은지금체포된사람만해도 400 여명을넘는다. 3 개월마다비무장캠프를하고이들간비폭력워크샵에참가한다.

⁷ 에스페란토어(語)는자멘호프(L.L.Zamenhof)가모든민족어들간의평등과중립에기초해서만든세계공통어.

가, 민족적인가등은이미문제가아니다. 전쟁의당사국은모두, 적국도똑같이이러한방법을쓰지않을수없다.

모든전쟁론에있어서, 특히, 사회주의자들이빠져있는큰잘못은전쟁이무엇보다도가장잔혹한죽음을강제하고있는국내정치인데도그것을대화정치의하나의에피소드로본다는것이다. 그것은극히단순한것 — 살육은억압의가장근본적인형태 — 으로, 군인은살육으로내몰려서죽는다는사실이다. 그러한억압의장치는한번구성되면파괴될때까지존립을계속하는것이다. 모든전쟁은(비록혁명가에의해서수행된다고해도) 반동의요인으로보지않으면안된다. 국가장치에의해일어나는전쟁은아무에게도자유를가져다주지못한다.

혁명전쟁은혁명의무덤이다. 따라서군인이라기보다무장시민에대해서는지휘장치, 경찰의강압, 특별재판, 도망에대한형벌등을일체부과하지않고자의(恣意)를인정한다는조건에서만전쟁수행을승인할수있을것이다(근대사에서한번파리고문때이러한전투가있었다. 그게어떤결말을가져왔는가잘안다). 전쟁에종사하는혁명은반혁명의타격으로무너지든가군사적전투의메카니즘그자체에의해서스스로가반혁명으로전화할수밖에없다. 거기서혁명의전망은극히한정된다. 혁명은전쟁을피할수있는가 — 이러한곤란한경우에, 일체의희망을걸고도전하든가아니면포기하든가둘중하나이다.

때로전쟁이혁명적요인인듯보일경우, 확실히전쟁의결과로조직이나쁜장치는붕괴하거나바뀐다. 그러나그것은마르크스의정식이말하는, 국가장치를파괴하는대신에뒤바꾸는혁명이일어나는데불과하다. 이것은이제까지늘어난사실이다. 역사는국가권력장치가시민의정치행위에더욱억압을가할때이장치를파괴하기위해서권력장치를직접상대해서투쟁할지의여부를무조건적으로선택하게한다. 그러나만일, 행동을포기하지않으려면국가장치에대해서외부로부터가아니라내부로부터만투쟁할수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 더군다나전쟁의경우자기도톱니바퀴가되어있는전쟁장치의기능을방해하든가또는그장치가인간의생명을짓밟개는편에서든가, 어느편을선택하지않으면안된다.

— 이것은또비폭력직접행동의입장에서떠는전쟁론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V. 비폭력이란무엇인가

비폭력과 의사비폭력체제

우리들에게 비폭력이란 일상을 말한다. 일상이란, 가정을 만들고 아이를 기르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정말로 당연하고 평범한 나날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반복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비폭력적 질서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비로소 그 생활을 일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폭력이 일상을 뒤흔들고 나날의 생활에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비폭력적 일상이 깨졌을 때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이외에는 의식하지 못한다. 이를테면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구 등 폭력 하에서 위기의 연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은 하루살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상성조차 박탈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폭력체제 하와 의사비폭력체제 하의 일상은 명백히 다르다. 우선 자신들의 목전에 있는 사회상황을 의사비폭력체제 사회라고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

거듭해서 말하자면 이러한 일상생활은 비폭력을 의식하지 않는 것과 표리(表裏)가 되어 대개는 폭력이 폭력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서 실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일본에서는 지금 우연히 머리위를 포탄이여기저기 날아다니지 않고, 단순히 개인 폭력이 횡행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흡사 비폭력 상황으로 여겨야 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문이 써갈기는 범죄가 일어나도 강건너 불구경이고 그것도 금방법적으로 단속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그 일부분을 보인 국가의 폭력 기구는, 바로 우리들의 일상에 존재하는 비폭력과는 질이 다른 의사비폭력의 상황이며, 그것은 의사비폭력의 체제 하에 우리 일상이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비폭력의 인민성

사회 생활에 나타나는 비폭력 상황은 그것이 인민의 자각이나 의식의 확립 같은 것을 통해 가까스로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만큼 비폭력성이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인민의 속성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우리들은 일상적으로 특별한 의도도 없이 질서 있는 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것은 본래의 생명력 — 비폭

평성보다는 더 강하게 개별적인 심정에 따라서 ‘결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토야마씨는 ‘테러’라는 방법을 앞세우고 “나는 어떻게 하는가”를 말하면 되지 않는가.

“그 일당들보다도 재빨리 그것을 예감하고 입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의 ‘일당’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여기서 주체가 되는 ‘일당’은 현치사나 일미의 고관은 아니다. 좀 더 전면에 끌려나온 것은 “순하고 겁 많은 오끼나와 사람”, “예절 바른 데 모나집회”, “피해가 없는 게릴라”, “기지의 돈에 모여드는 구대기”이다. 이것은 곧 자기 주위의 ‘전부’를 잘라버리고 ‘혼자’가 됨으로써 (테러를 최후의 선택지로 하기 이전에) 빼도 박도 못하는 자신을 향하는 테러의 절대화로나 가는 것이다 (테러를 필수로 하는 ‘절대 상황’이란 이런 이유로 마침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약 에메도 루마씨의 픽션의 결말이 3세의 남아를 목졸라 죽이려고 하다가 주저한 나머지 결국 못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면 이 작품의 충격 효과는 반 이상이 없어졌을 것이다. 또는 강간당한 오끼나와 인연 여자 하인이 가해자인 미군 병사의 가족을 사살했다면 테러가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단순한 복수를 위한 살인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오끼나와의 절대 상황은 훨씬 뒤에 있는 배경으로 멀어진다는 것은 확실하다.

일반적으로 테러는 반체제 측에 있는 개인 또는 소수 조직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체제의 지배에 저항하고 반대하고 의제하기 위해 공중 납치, 점거, 또는 요인 등의 유괴 살해 등을 폭력 행위 (전술)로 삼는다. 물론 그것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테러가 승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과거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그것의 연장 확대로서 게릴라에 대해서 성급히 결론짓는다면 일본에서의 가능성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과연 테러나 게릴라는 국가의 폭력성을 도발하고 현재화하는 데서 국가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러나 좀 더 얘기하면, 테러나 게릴라가 도발하는 국가의 폭력성은 어디까지나 형법이 정한 범죄의 단속, 즉 대의제 국가가 승인한 합법적인 ‘의사비폭력’인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테러와 게릴라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거점으로 삼는 국민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자승자박적으로) 체포되고 처벌되는 것이다 (테러는 공적 분노의 사적 해소일 수 있어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일 수는 없다. 가령 일시적으로 반응이 있었다 해도 즉시 닦쳐오는 대대적 탄압이 많은 관계자를 끌어들이게 된다. 더구나 순진무구한 어린이를 살해하는 것으로는 테러의 의미를 보편적으로 납득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토야마씨의 코멘트에서 맨 끝에 ‘코자의 폭동’이 나오는데, 폭동과 테러는 일견 비슷하다 해도 전혀 질이 다르다. 여기서 나는 “자연발생적 코자 폭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긍정하면서, 토야마씨의 성급한 결론이 결론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해두고 싶다.

정당한행동이었고그밖에놈들을물리치는방법은없었다”. ‘폭동은전적으로정당’하다는지평에서사고하기시작해야할때다.

절대상황과테러

우선결론부터말하면나개인은‘테러’는잘안한다. 하려고생각하지않는다. 그러나다른사람의테러는말려도말릴수없는것을포함해서테러의시비를논하고싶지않다. 그런데서엄밀하게말하면오히려“부득이다”, “어쩔수가없다”는데원칙적으로긍정한다. 부정하거나반대하지않는다 (여기서말하는‘긍정’은특히역사로서예를들면안중근, 박열, 와다규우 (和田久) 등특히사회운동사에서테러리스트라고했던죽은자들에대한것이다).

내게테러는‘절대상황’하에놓여진사람이이외에는어떠한방법도발견하지못한막다른데빠진심정이선택한‘1인 1살’적자살행위와같다. 다시말하면‘폭동’이아니며‘게릴라’도아닌개인의결의에입각한‘폭력적결재행위 (暴力的決裁行爲)’이다.

그런데메도루마씨의작품이우리들의문제일수있는것은전적으로이질적인상반되는입장을시비없이충격적으로거칠게내밀었기때문이다. 그첫째는무엇보다도테러의내용이세살배기사내아이를노렸다는데서오는불쾌감, 혐오감이다. “최저의방법이가장유효”인지아닌지를따로하고작가의상상력이이러한영역까지침입하는것을나는용서하고싶지않다. 오끼나와섬사람들도, 픽션이기는하지만, 이러한가정의테러를틀림없이부정할것이다. 그런데도 — 이작품은테러의배경인‘오끼나와상황’에대해서야마토 (ヤマト)⁶의우리들은아무일도하지 못하고, 거의방관자밖에는아무것도아니라는것을비취준다. 그것은이른바양식있는진보적지식인이라는사람들에게‘책임을지지않는양심적가책’, ‘견딜수없는심정’을갖게한다. 토마야씨의“모든의미에서테러를생각하지않으면안된다”는발언은실로그러한‘양심적가책’까지포함하면서문득정신을차리고보면우리들의주위까지도그런‘절대상황’에서“이러지도저러지도, 꿈쩍도못하는우리들”에게생각이미치는데서새삼스럽게테러의의미를묻는것이다.

그러나토야마씨가테러를문제삼을때우선당초에제시해야하는, 테러를필요로하는‘절대상황’을암묵적으로공통의식으로서전적으로생략하고있다는것을알았다. 확실하지금일본은, 더구나오끼나와는절박한‘위기국면’이라고해야하는정치상황에있다. 그러나그러한‘절대성’은지금일단보편성, 일반성이기는하지만, 좀더얘기하자면, 그것은순전히개인의위상에있어서의심정적인생각의심각성, 절박성에따라서이러저러하게표출되는것이다. 다시말해서일반성, 보

력성에입각해서나타난속성적상황의역사적결과로서, 국가기구나법률, 제반제도때문이다. 단우리들이그것을자각하는일이거의없고또아직드러나지않은 [未然的] 무의식하에서기능하고있다는것을깨닫지못할뿐이다.

그러니까인민의일상생활과사회의비폭력상황은한가지로나타나서나눌수없는관계로결부되어있다. 그러나그의식에서는폭력에대응하는것으로서비폭력이적극적으로파악되지않는다. 우연히일상생활을파괴하는적 (敵) 인개인폭력만이현실적으로나타나서그에대한대처로국가의필요를드러내고있을뿐이다. 또그것이마침내국가권력의법질서라는이름의의사비폭력체제의맹목적인이유이기도하다. 쉽게신화를로돌자.

어느날난타국의왕이국민의반란에곤혹해서석가에게정치의요체를물었다. “우선무엇보다도타국하고의전쟁을그만둘것이다. 전화 (戰禍) 로오국이영글지않고질병이유행하고도덕과의리가문란해진다. 전쟁을하면서나라를다스릴수없다.”

라고대답했다던가. 이것은어떠한강권국가라도안정된통치와국가의존재기반으로비폭력적통치를지향하는것밖에는안정이있을수없다는원칙을말하는것이다. 폭력지배를드러내고있는사회, 앞서예로든팔레스타인, 혹은전쟁중에는인민의생산노동은완전히이루어질수없다. 다시말해서국민의생산물을수탈함으로써성립되는지배권력의존립기반도그야말로근본에서부터위태롭게된다는것이다. 이상을바꿔말하면,

- 1) 국가는존재의근저에인민의비폭력적일상의영위를깔고있다.
- 2)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일상질서는권력에의해서만유지된다고바꿔치기해서그러한의사비폭력체제를법제화 ☒ 기구화하여의사비폭력상황을통치의결과로과시한다.
- 3) 그러한체제를유지하고완벽하게지킨다는명목으로자기권력을지키기위한폭력장치를더욱증대하고독점한다.
- 4) 그것은인민본래의비폭력일상의의미에대한각성을방해하고인민자신의사회관리능력의자각과발현을저지하는의회제민주주의 — 투표와선거 — 로인민스스로의의지를자승자박하는기구를만든다.

요컨대, 국가의국민지배는일상에서비폭력적이면을완벽하게하여이제민주주의라고불리고‘반테러’를주장하는국가체제군에의해관철되고있는것이다.

⁶ 일본토를의미.

VI. 의사비폭력체제와민주주의

민주주의라는의사비폭력체제화

권력지배는폭력을될수있는한억제하고또합법적인명목을고수하는것으로 폭력국가라는것을위장한다. 이렇게해서인민의속성인일상적비폭력성은의사 비폭력체제하의일상성으로고쳐져서부여된다. 그래서인민의일상이권력에의 존함으로써성립된것같은환상을갖게되는것이다. 국가와인민이상호의존적으로외쳐대는슬로건은“폭력은악이다!”, “우선얘기하자”, “민주주의를지켜라!” 이다.

우리들의모든일상생활을지배하고침해하는것으로서폭력이진짜로결정적인미를가트는것은, 지금, 사회폭력, 기구폭력, 장치폭력이어느사이엔가질적전 환을끝내고우리들의일상에서는거의보이지않게된때이다. 조직화되고, 기구화 되어자체의생명력을갖게되었을때부터이다. 그것은단순히인민이폭력장치를 의식하지못하게하는데만문제가있는것이아니라, 실로질적전환으로알아보지 못할만큼변모하여지배의배경에존재함으로써우리들과근본적으로대립하게된 다. 폭력의사회화 — 전환은, 국가의지배기구인민주주의안에서더욱완벽하게 나타난다. 민주주의는국가와유착하는순간부터원리적입장을상실하고기만과 환상으로바뀌어의사비폭력체제의폭력그자체의도구가된다. 그리고확실히국 민은, 모든개인은헌법앞에서자유롭고평등하므로, 기본적인권을보장받는다. 그러나인권보장, 삼권분립, 국민주권등민주주의의원칙은어디까지나법적으로 그런것이고실질적으로는법치국가로서의계급적불평등, 부자유를고정화하고 자본독재의본질을은폐하는위장에불과하다.

법치국가의폭력 — 군대, 경찰, 재판소, 감옥등 — 독점을합법적으로만들 고그일방적인행사를법률의이름으로휘둘러댄다. 그러나한편에서는, 공공복지 의이름을빌려인권제한등민주주의의원칙을이러저러하게침해하는국가의행위 까지도당위화하는역할을다하게된다. 게다가선거, 투표, 의회라는제도가뜻하 는 — ‘네가투표로선택한의원원이정한법규로’라는논리는우리들자승자박하는함 정에빠뜨린다. 그야말로 의사비폭력체제로서항상인민을대량으로죽이는기구 를내부에숨긴채비폭력사회로서의허상을전면에내세우고있는것이다.

어서서창을열려고한다. 사내아이인데 3 살쯤됐을까, 곧차를세우고뒷좌석으로 돌아가서울어대는조그만몸을안아올린다. 그리고, 뒤에서목을졸랐다. 목구멍 속에서무엇이터지더니오물이팔을적신다. 아이의웃으로닭고다시운전해서숲 속에있는폐목이된양계장그늘에차를세웠다. …… 국도에나와서택시를두번갈 아타고아파트로돌아왔다.

…… 돌아오는길에기노만 (宜野灣) 시해안공원에들렀다. 3 명의미군이소 녀를강간한사건에 8 만여명이모였지만뭐하나하지못한희극이몇날처럼생각 났다. 그날회장한구석에서생각했던것을이제겨우실천할수있었다. 후회도감회 도없다. 불안에떨던조그만생물의체액이어느날돌연독으로변하는것처럼, 자기 의행위는이섬의자연이고필연이라고생각했다. ……

문제제기 2 — (테러)

다음은 『미스즈 (みすず)』² 466 호 (2000 년 1 월) 에게재된토야마이찌 로오 (富山一郎) 씨의글을일부 옮긴것이다.

모든의미에서테러를생각하지않으면안된다. 그앞에정지하지않고한없는상 상력과인내심으로그일당들보다도재빨리그것을예감하고입수하지않으면 안된다. 그리고메도루마쉰은코자를생각하면서이작업에착수했다. 오끼나와라 는이름에달라붙어서위기사황을꾸준하게말하는자는메도루마쉰의 『희망』 이 우리들의눈앞에서묘사한어린애의시체에서시작하지않으면안되는것이다. 말 의힘을생각하게한그의에세이에의해서나는구조되었다. ……

지금은고인이된세끼히로노부 (關廣延) 는오끼나와가일본에복귀한 1972 년 5 월 15 일의코자를이렇게묘사했다. “지금어떠한노력으로도그무게와같은 걱정으로조직할수없는검은분노가이땅을뒤덮고있다.”³ 이렇게조직되는것이 불가능한검은분노가정치화되기위해서는어떠한논의를거쳐야하는지를문제삼 아야할시기이다. 이독설가 (毒説家) 의말을지금다시읽고싶다. 그리고역시코 자가초점이된다는것은명백하다. 1970 년 12 월 20 일심야에서다음날새벽에 걸쳐서일어난폭동을생각하는것이지금필요하다. 오끼나와시 (市) 평화문화진 흥과 (果) 의오랜작업끝에태어난 『KOZA』⁴, 『미국이본코자폭동』⁵은, 역사 학이나사회학의분석과자료로서가아니라그들의검은분노를어떻게정치화했는 가라는오직한가지목적에위해서존재한다. 『KOZA』 에실려있는「기지내의흑 인이오끼나와사람들에게보내는호소」는이렇게결론지었다. “폭동은전적으로

² 출판사이름.

³ 『沖繩 1972. 5. 15』 (關廣延, 海風社, 1987 년).

⁴ 『KOZA』 (那覇出版, 1997).

⁵ 『米國から見たコザ暴動』 (ゆい出版, 1999)

부록 2. 테러를 초월하는 것

문제제기 1 — (오끼나와)

우선 처음에 아사히신문 (1999. 6.26) 석간에 실린 픽션, 오끼나와의 작가 메도루마쉰 (目取眞俊) 씨의 『코자희망 (コザ希望)』¹에서 추려내서 대강의 줄기를 소개하겠다 (저자에게는 실례지만,은 중략부분)

6 시뉴스의 톱은 코자의 시가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숲속에서 행방 불명이던 미군 병사의 어린애가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식당에 있었던 몇 사람의 손님 과점원의 눈이 텔레비전을 주목한다. 사체에는 목이 졸린 흔적이 있고 현 (縣) 경찰에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로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상투적인 말을 한 다음, 거리의 소리가 소개된다.

..... 취재기자가, 신문에 보낸 범행 성명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있다. 앞에 있는 석간 1 면을 본다. 성명문의 사진이 실려 있다. 지금 오끼나와에 필요한 것은 수천 명의 데모도 아니고 수만 명의 집회도 아니고 한 사람, 미국인 어린아이의 죽음이다. 위협적인 것과 직선의 빨간 글자

..... 헬리콥터가 촬영한 숲과 코자시가의 화면이 나오다가 현지사 (縣知事) 와일미 (日米) 정부고관의 코멘트가 이어진다. 순진무구한 어린이를 노린 범행에 대한 분노와 증오, 웃음을 참고 카레라이스를 입으로 나른다. 흥분된 말 뒤에 있는 초조감이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놈들은 유순하고 얼빠진 오끼나와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리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반전이 아니기지만 대니 떠들어댔지만 고작 집회를 열고 질서 정연한 데모로 얼버무리는 유순한 민족, 좌익이니 과격파니 해봤자 사실상 해가 없는 게릴라를 펼칠 뿐이지요 인테러나 유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총으로 무장하는 것도 아니다. 군용지사용료니 보조금이니 기지가누는 똥과 같은 돈에 물려드는 구대기 같은 오끼나와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화해의 섬, 구토가 난다.

..... 최저의 방법만이 유효한 거다. 멈춰서서 투덜거린다. 거리 저편에서 카메라가 돌아간다. 보도로 들어서서 걸음이 빨라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아파트로 돌아왔다.

..... 시영단지 북쪽에 있는 숲으로 들어갔다. 스산한 길에서 차가 흔들릴 때가 지어린 애는 눈을 뜨지 않았다. 뒤에서 나는 울음소리에 차를 세우고 돌아보니 까일

¹ 3 명의 미군이 소녀를 강간한 사건에 8 만여 명의 오끼나와 사람들이 모였던 코자 폭동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의사비폭력과 의사

그러나 민주주의가 어떻게든 비폭력 사회로서의 허상을 완벽하게 할지라도 정치 부패와 함께 그 가면은, 옷 속에 감춰 입은 투구처럼, 때때로 노출시킨다. 때로는 비폭력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조직된 폭력 기구의 물리적 행사로 환원한다.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에서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자의적 행동이다. 군대 조직의 일원인 병사가 주민을 체포하고 능욕하고 고문한다. 그러한 폭력은 특정 개인의 개별적 성향에 따라서 더욱 잔혹하게 위법으로 행사되면서 개인 폭력으로서의 내용을 갖는다. 그러나 이 경우 개인 폭력은 당초 의미의 개인 폭력과 똑같아 보이지만 실은 크게 변질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첫째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대등하지 않다. 물론 입장이 역전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둘째로, 가해자가 지닌 압도적인 장비의 우위 상황에서 약소자, 무능력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셋째로, 피해자 — 주민 — 는 자기의 가족이나 집단과 강제로 떨어져서 고립된 개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서 가해자 개인의 배후에는 법적인 조직이 존재하고 있어 언제나 그곳으로 달아날 수 있다. 넷째로, 피해자는 정당방위 수단까지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모든 책임을 덮어 쓴 약으로 처벌된다. 이것은 당초 단순한 개인 폭력의 의사비폭력 체제로 개인에게 환원될 때 그것은 이미 사회 폭력으로서의 폭력으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반드시 개인에게 수렴한다는 폭력의 특성은 사회화 되더라도 그 자체로 나타나지만, 개인 폭력의 원래의 미나 내용과는 다르다는 데서 인민의 생명력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것은 다음의 것까지도 명백하게 한다.

1) 권력이 표현상 비폭력 일상을 명목으로 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는 것 — 폭도나 범죄자의 출현은, 어쨌든 지치 않을 혼란하게 하고 인심을 불안하게 한다는 데서 그들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것이 된다. 데모의 폭동화나 범죄 빈발은 의사비폭력 체제를 혼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권력에 대한 공격의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서 권력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숨겨 놓았던 권력 장치들을 백일하에 발동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들의 의사적인 비폭력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2) 따라서 우리들이 만약 일상 생활에서 구현하고 있는 자치 관리 능력을 진짜 스스로의 것이라고 자각하고 권력의 지배 질서가 이제 불필요한 눈가림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권력의 배후에 있는 폭력 장치를 무용지물로 인민의 눈앞에 끌어냄으로써 권력 유지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인민의 정신 구조까지도 바꿔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3) 그렇지만 인민이 권력에 대해 결기 할 때 그것은 또 일상 생활의 비폭력 상황 — 의사이기도 해도 폭력 그 자체는 아닌 — 을 위협한다는 자기 모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공의 복지, 사회 안녕의 명목하에 권력에 의한 혹독한 탄압과 매스컴의 탄핵 캠페인이 집중된다. 권력의 폭력적 탄압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심정은 널리 퍼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인민의 반역은 권력의 토대를 뒤흔드는 것이면서 동시

에인민의비폭력성그자체와도대립하는모순을가지고있는데서인민의일상과괴리되어오히려적대시될우려가있다.

그리고우리들은이상세가지여건을복합적으로일체화하는것으로서, 마침내이제새삼스럽게비폭력직접행동을택할수밖에없는것이다.

⑨ 역사의연속성과거기서생기는작은성과는, 완전히비폭력직접행동의자각과그확대를이끄는여기서부터여자들이열쇠를쥐고있다. 마지막으로이것을강조해둔다.

1999. 2. 8(未完の完)⁶

⁶ 『1997 ‘로프트플러스원 (ロフトプラスワン) 습격을용서하지않는공동성명’전기록 (全記録)』 에게재.

역사와비폭력행동, 여자들

이쯤에서결말을서두르겠다.

요즘내가자꾸생각하는것은역사의연속성이라는커다란흐름속에서의변천이라기보다미완의작은성과 [小達成] 가있다는것, 그리고그의미에대해서다(이를테면그것은비폭력직접행동의사회적일상을, 그것을자연스럽게나타내고 있는여자들의여성사에서, 나는어머니나할머니가걸어간 50 년, 100 년전과지금나와가까운지기인그녀들과의공통성과차이점을알면변천이라고만말할수있는것이아닌역사의의미가밝혀질것이다).

그것을이폭력론노트에이어서말하면, 강한자가지배하는직접폭력사회에서현대국가의의사비폭력체제사회까지오는데는약한자의길고도이러저러한단계의도정(道程) 이있었다. 그리고그러한연속성에서앞으로도그것이계속되면서결코멈추지않는다는역사에대한나의신뢰이다. 그것이내삶이기때문에내가역사에책임질문제는아니다.

의식하든안하든간에결국에는비폭력직접행동의작은성과, 미달성(未達成) 이거듭되면서역사를계속해서만든다는확신이다. 역사를강에비유하면, 개인의일생은강의흐름에따라흐르는무(無) 와같은한방울의물에서나지않는다. 나는그런무와같은한방울의물로서흘러가면서, 때로는그흐름이소용돌이치거나멈돌다가급하게흘러가는결물살을헤엄쳐왔으며, 생각하면꽤나재미있게내가하고싶은대로떠내려왔다고생각한다. 그리고그러한흐름이바로문자 그대로내운동의한순간을뜻하는것이였다. 조금만더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를계속하겠다. —

⑤ 폭력은극복적, 적극적, 현상적(가시적) 이다. 따라서폭력의행사는의사비폭력체제하에서는비일상적인것으로항상여론의감시를당하고그것의과잉행사는거꾸로억제되지않을수없을것이다.

⑥ 비폭력직접행동은방어적, 수동적, 정신적(불가시적) 이다. 그러나그렇기때문에역사의연속성이지속되는가운데있는작은달성을어느사이엔가만드는보이지않는축적이라고할수있지않을까.

⑦ 비폭력과직접행동을하나로 묶는것은본질적모순은아닌가하는질문을때때로받는데, 그렇지않다. 예를들면생물의자웅, 인간의남녀가 — 생물본래의사명 — 생식이라는남녀관계가새로운생명을계속해서만드는것같이비폭력직접행동은생명생활이라는점에서어떠한폭력지배도마음대로할수없는힘이다.

⑧ 사또오군의패러디명함이나전단이나야유가무의식중에모든이를웃기게하는따위의해학, 풍자, 특히놀이그자체였다면더욱좋았는데. 여기서빠진것이비폭력직접행동의관점이다. 그보다도사또오군이만약에알아차리고여자들의입장에서문제를제기했다면틀림없이폭력·비폭력의본질이더깊이접근했을것이다.

VII. 게릴라, 인민성의문제

게릴라, 그의미와행방

아주간단하게말하면, 인민과권력자의다른점은우리인민이권력자와대결할무기를빼앗겨서갖고있지않은데비해그들은항상크고강력한폭력장치를보유독점하는데있다. 그리고애당초우리들은무장할필요가없지만그들은항시자기권력을유지하기위해무장을필요로하는데있다. 그들은폭력장치를위협적으로소유하고수시로행사함으로써그자신을유지할뿐이다. 게다가인민이적대하지않을때도그들은항상인민을적대시하지않으면안된다.

그러나또인민과권력자의역사는, 그입장은거의고정되어있으면서그관계를일시적이기는하지만상황으로서변화시켜왔다. 지배권력의폭력장치는조직의근대화와과학발달에의해서현저하게강화되어때때로그위력을국가내외로강력하게과시하고발휘하였다. 그런데도인민의지위와처우는최근수세기동안점차적으로향상되고개선되어왔다고할수있다. 권력은공포정치를대신해서더욱교묘한회유와타협, 당근을낚시밥으로던져주지않으면안되었다. 즉, 인민은집단을이루고조직을만들어그들의연합을도모함으로써전체의의지 — 예를들면, 탄원, 상소, 진정, 도피에다가나아가서폭동, 야습, 스트라이크등의인민고유의방법, 다시말해서직접행동을통해그때마다패배하면서도오랜세월을두고이러한결과를이루어온것이다.

19 세기에이르러서노동자계급이등장했다. 만국의노동자여단결하라 — 그들의조직화와단결은다가오는인민의시대를예언하며빛나는전망을열어주는것같이, 인민측이투쟁주체로서질적으로변화하며새롭게형성되는것을의미했다. 노동자계급과더불어생겨난노동운동, 사회운동, 혁명운동은 20 세기세계를뒤흔들고움직이는새로운운동의힘이되기도했다. 또, 그것은세계대전중의피점령지구주민의저항이나전후점령지분할문제, 민족독립운동의봉기등의지하조직, 게릴라, 빨치산, 레지스탕스와도연계되기도했다. 이들은옛날의농민반란이나종교반란등의유산과교훈까지흡수하면서인민고유의직접행동과도연계된새로운무장투쟁방법으로발전하였다. 그것은점차로단련되어인민만이이룩할수있는인민고유의투쟁방법을발전시키고, 게다가권력측이택할수없는투쟁형태라는데서유효성을증명하는것이였다. 이에관해서베트남전쟁당시의미국무부차관로스토프는다음과같이말했다.

“미국은하나의예외를빼고모든형태의군사침략을무력하게만들어승리했다. 그에외라는것의하나가게릴라전이다. …… 그것은하노이가중공의지지에라오스, 남베트남에서펼친방식이며타이동북부에서준비하고있는방식이다. 또, 카스트로가카리브해각국에확대하려는방식이고공산주의자가아프리카에갖고들어가려는방식이다. 그들이왜게릴라전을택하는가하면 …… 게릴라한명에대해서정부군 15 명이필요하다는게릴라전의산술이있다. 이것은게릴라측에서는서방측군사주력(主力)과의대결위험이낮다는것, 약소국고유의약점을이용한정치기술을발휘하기쉽다는것때문이다.”

이러한미국고관의발언을바꿔말하면 —

1) 게릴라에게는국가의거대한군사장치도충분한역할을못한다. 정면대결을위해폭력기구를최대한발동해서전투를시작해도이겨야할전투를헛다리짚게만들어예기치않을때불의의공격을받는다.

2) 게릴라전은전투의승패에기초를두는게아니라, 정치기술의발휘에기초한다. 다시말해, 종래의전쟁개념이나전투양식의규격과그들을완전히벗어나면벗어날수록효과적이다. 그리고게릴라의본질은원칙적으로무장투쟁의승패에있지않다. 열악한조건에서더구나근대병기와거대물량에대항해서지고또저도결코지지는않는인민의원리와방법을구현하는데있는것이다.

그렇다고해서게릴라가인민의비폭력적본질을충분히구현하고있다는것은물론아니다. 비폭력적본질의맹아(萌芽)와방향을사사적으로나타냄으로써그본질을제시하고있었다는데불과하다. 일반적으로‘게릴라’라고할때그것은무장한유격전소집단을가리키는게보통이다. 그것은불의의습격이라든가전투를주목적으로하는한그자체의무장강화를더욱더추구할수밖에없다. 그것은적의정치사정의변화나거듭되는전략적착오등의기회까지합쳐서전투규모의확대, 부대편성의대형화와조직의근대화를이루어, 전략전술적양식에도근본적인질적전환을추구하지않을수없다. 즉, 게릴라를병기, 병사의수와질의우열에기반을둔국가적인군대차원의지위로정치적으로발전시키는것이다. 이결과입수할수있는한근대살상병기를구입하여베이유가말한자기의병사를사지(死地)에보내어싸우는것이다. 그리고당연히인접국가또는그러한세력등의원조개입, 대리전쟁까지도피할수없게된다. 이것이게릴라의역할이최상의조건에있을때의결말이다.

그것은인민고유의, 인민만이활용할수있는유효한투쟁방법을버리는것이다. 권력탈취의나라따먹기전쟁은인민군과군대조직이라는구분관계에서오직군사적승리를위한군사신앙이되어모든것을국가체제화하는것이다. 이렇게게릴라는그것의집단기구로서의폭력때문에애초부터반드시권력화의요소와지향을갖게된다. 그래서처음에는대단히인민투쟁적이던게릴라가그들의무력이커지면서어느시점부터실로반인민적, 반혁명적으로변해버린다.

③ 국가는그권력을직접적폭력이아니라의사비폭력에서의폭력으로개입하고지배함으로써구체화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비폭력직접행동은본래의그대로이고게다가그렇기때문에의사비폭력체제를거부하고저항하는것이된다.

④ 비폭력직접행동은승리를지향하지않는다. 오직지고또저도지지않을뿐이다. ‘두부에웃’, ‘버드나무에바람’으로대치한다. “이기는게아니라끝내지지않을뿐이다”라고할때비폭력직접행동은상대방의의사(擬似)를오히려반대의힘, — 상대의약점으로삼는의미와방법이된다. 그런것으로국가를거부하는영구혁명 — 역사로이어진다.

여기까지 썼는데, 아무래도불충분하고할말이더있는것같다. 비폭력직접행동의방법을말해달라는질문을받으면나는대답할말이없다.

그러나비폭력직접행동은어떤사태, 어떤상황이눈앞에있고그것을향해서몸을내밀며부딪치는방법의다양성, 임기응변을즐기는법 — 개인의놀이에서시작된다고하면조금은통할지도모른다. 여기서내가이제까지해온것을예를들면금방“고작그거야!”하겠지만, — 사또오군이로프트에서한것과비슷한, 이를테면권력에대한“귀찮게구는 5 월의파리나잠든꽃속의모기²⁾”처럼때로귀찮게하는정도의것일뿐이었다(이에대해경찰나부랭이들은기소도, 구류도못했다. 그보다도신문이대서특필한탓에선전이되어, 기껏해야 5 차례밖에안되는‘가택수색’이있었을뿐이다).

그런데 — 요즘은이제나도나이를먹어거의움직이지못하지만 — 좀전까지는노동자소수파의데모나피켓팅, 연좌데모등에조금기대를걸고가마가사끼(釜が崎), 산야(山谷), 거기다가新宿³⁾, ‘아끼노아라시(秋の嵐)’와이노겐(イノケン)⁴⁾이문제제기한것을응원하면서,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東アジア反日武装戦線)⁵⁾, 일본적군파등의체포자구원(救援)에당연히관계하고있었다는것이다.

그리고지금천황제반대, 원전반대, 사형제도폐지, 국가배상청구소송등에아주쫄쫄이나마관계하고있는것은무엇든간에그것들이의사비폭력화한국가폭력의느슨해진틈, 허점에대치하는특징을지닌과제의장이기때문이다.

²⁾ 잠자고있는꽃속에들어난모기처럼벌함을쓸수없는상황이나상태를의미함.

³⁾ 가마가사끼, 산야, 신주꾸모두요세바(寄せ場), 이케바(生け場)의의미로서노동시장이자삶의터전.

⁴⁾ 하루주꾸미의노점. 경찰단속에도노점을강행, 운동처럼진행됨.

⁵⁾ 1979 년조선재침략을획책하는일본자본을공격하기위해만들어진조직이다. 다이도오지마사시등이미프비시등등의재벌기업에폭탄공격을했고, 천황을폭살하려다가불잡혀사형을언도받았으나꾸준한사형반대운동으로아직수감중에있다.

우열의확대를 통한 균형화이다. 셋째번 전환 — 즉첫째, 둘째의과정을 총괄하고 게다가불가시(不可視)가된구조폭력 → 의사비폭력체제로수렴함으로써고정되는것이다. 그것은약한놈이그것을승인하고지지해서절대폭력이라는의미의것이된다. 바꿔말하면, 사또오군이전기파에게당한로프트에서의폭력사건은앞의첫째단계이면서그다음에나오는대응과뒤영커서폭력의본질에대한성찰을제기하고있다.

의사비폭력체제의현실

되풀이하게되지만, 현대사회의최우익에위치하는최대의조직은국가이며구체적으로는정부이다. 그것은대의제로시작해서법규, 조례등에의한질서유지를명목으로하는합법적폭력장치 — 경찰, 재판소, 형무소를구비한의사비폭력체제를구성하고있다. 국민은그러한의사비폭력이데올로기에무감각한채로비폭력질서에합의하고되풀이되는선거에의해서추인(追認)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여기서제기되는질문은, 이렇듯자기가자기를결박하고있는것과같은상황에서우리들은무엇을할수있는가, 무엇을무기로저항하는가이다. 대답은단두가지방향밖에없다. 그것은폭력적저항인가비폭력직접행동인가이다.

그러나이미법적인바와같이전자는단한번에끝나는도박이다. 다시조직적대응 — 이것의강화 ☒ 확대는권력의탄압을초래한다. 거기서나오는운동의위기와부침이때로스파이문제나내부투쟁이된다는것도또한이미충분히분바이다 — 그렇다면단한가지남은것, 비폭력직접행동뿐이다. 이제선택의여지는없다. 지금그것은무저항주의나비폭력주의또는비폭력행동으로표현되기때문에애매하게되었지만실로그것을자각하는데서폭(暴)이아닌(非) 힘(力)으로서직접행동인것이다.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두서없이자의적으로생각하는대로늘어놓으면,

① 직접행동이란생산과창조, 예술과문화의자치관리, 노동과유희의자기향유이며그것이바로약한사람들 — 인민 — 만이일상생활에서이루고수행하고있는생활력인것이다. 그리고그것을보증하는절대조건이비폭력사회인것이다.

② 애당초비폭력직접행동은우리들약한자만이갖는생활력 — 생명력 — 의힘이라는것을우선제대로확인하라.

사파티스타가시사하는것

여기서 1994 년멕시코에서무장봉기한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EZLN : Ejercito Zapatista de Liberacion Nacional) 의마르코스부사령관의시사적인발언을소개하겠다.

▽ 되풀이하지만우리는권력도정당이되는것도바라지않는다. 그러한것은필요없다.

▽ 무기에의해서권력을장악한자는결코통치해서는안된다고우리는생각하고있다. 무기와힘으로통치할위험이있기때문이다.

▽ 우리가지향하는것은, 민주주의와정의와자유를요구하기위해서이제는지하로들어가거나무장하거나할필요가없는때이다.

▽ 우리는어느날인가병사가더필요치않기위해병사가된전투원이다. (중략) 우리는이러한자기소멸로가는길을가다가소멸할운명인직업을선택했다. 우리는무장투쟁을 1960 년대게릴라가생각했던것같이유일한길, 유일한수단, 모든것을결정하는유일한진실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 EZLN 은엄밀히정의된이데올로기를갖지않은봉기운동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나사회적공산주의나카스트로주의나게바라주의등등고전적인정치적경우그러는것과도합치하지않는다. 무장투쟁이해야할것은문제 — 자유의결여, 민주주의의부족, 부정의(不正義) — 를제기하는일이고그런것을이룩한뒤에는소멸하게된다.

▽ 혁명운동이나그지도자는모두정치지도자나정치적주역이되려고하는경향을갖기때문에‘혁명적’이라는용어는적절치않다. 이에대해서 EZLN 은어디까지나사회반란을계속하겠다. 혁명가는항상위로부터변혁할것을바라고있다. 그러나사회반란은밑으로부터변혁할것을바라는것이다.

(『이미충분하다! 멕시코선주민봉기의기록』¹, 『마르코스여기는세계의변방인가』²에서)

그러면위에서얘기한게릴라의현대사적경위에서또는이상과같은사파티스타의새로운시사로부터우리들은다음과같은물음을제기할수있다.

1) 국가체제에대한게릴라의투쟁을권장하는것이다시국가라는폭력기구에사로잡히는악순환을어떻게, 어디서단절할수있는가?

2) 무장투쟁으로서의게릴라에대체하는이를테면비폭력게릴라같은것이있을수있는가? 그것은어떤것인가?

3) 역사적게릴라의여러가지요소중에서게릴라의인민성과유효성을이어받아서우리들의미래와전망을타개하는핵심은무엇인가?

¹ 『もうたくさんだ! メキシコ先住民蜂起の記録』(現代企劃室, 1995).

² 『マルコスここは世界の片隅なのか』(現代企劃室, 2002).

‘폭력단’의 의미

규모와성격을달리하는이러저러한젊은이들의그룹, 알기쉽게말해서폭주족이나중소야쿠자조직, 나아가서기업화한거대조직등아직도어떤종류의개인폭력의조직화, 집단화의여지를남기고있는현실은, 겉으로그렇듯한비폭력사회를허무는것이어서논리적으로모순된것같이보인다.

권력이왜그렇게강패들의조직화하고집단화된‘폭력단’의존재를용납하는가? 그첫째의미는그들이권력에직접적으로아무런공격을가하지않는, 오히려영합하는존재라는것이다.

야쿠자조직은경제연구소와우익단체로위장, 총회꾼³ 등기업화되어있지만권력은자기의권위가크게실추할우려가있을때만본보기로단속할뿐이고서로친숙하게그들의존재를인정하고있다. 덧붙여말하면, 한때야쿠자조직에가입하는거의모두가극빈층출신이고, 아니면조선인, 피차별부락민이거나대부분은사고무친의떠돌이로오갈데없는사람들이었다. 야쿠자조직은그들에게요세바(寄せ場)⁴, 이케바(生け場)⁵라는사회적존재의의미를갖고있었다고할수있다. 예를들면, 그러한것이라고할수있는것으로 1924 년이른바데끼야(テキヤ)⁶의젊은층이나키스트들의 — 야스야간이치(安谷寛一), 와타신기(和田信義), 타카시마산지(高島三三)⁷ 조력을얻어‘전국행상인선구자동맹(全國行商人先驅者同盟)’을만들었다. 금방남쪽에서는큐우슈우에서북쪽홋카이도오까지 16 개지부에수천명으로늘어났지만그들의유동성때문에곧해산할수밖에없었다. 또, 관동대지진때많은조선인을자경단(自警団) 으로부터보호해준쓰꾸다마사등많은조직체가있었다는것은그들의사회적존재의의미를말살할수없는뿌리깊은이유이다.

둘째의미는, 오늘월파리떼처럼생겨나서파생하는무수한그룹에대해서아무리강대한국가권력이라해도완전히파악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 다시말해서수적으로어마어마하기때문에경찰이완전히대응할수가없다는것이다. 그런데이문제는중요한핵심을건드리는데, 여기서는이것을암시하는데그치겠다. 즉, 잡초처럼돌아나고파생하는규모나성질이다양한‘폭력단’과같이무수히많은인민의개인또는소수무명의갯가지그룹에의한특히단한번의게릴라적활동에는국가의폭력기구는이에충분히대처할수없으리라는것이다.

요구하는도발도, 폭력을위한것도아니고오히려폭력을봉쇄하기위해자연스럽게나오는악한자의비폭력 — 폭(暴) 이아닌 (非) 힘(力) 으로나온방법의하나인것이다. 그리고그때비폭력과폭력과똑같은생명력의발현이며특히악한놈에게는폭력에대응하는의미를지닌힘이다 (아울러서말하면악한놈끼리의폭력사건은아이들싸움에서볼수있는의투(擬鬪) 와같은결과로끝나기일췌다. 만약그렇지않으면순간적으로끝나는충동적착란혹은생각하고생각한집념끝에결행하는매복이나야습, 또는죽음을각오한테러이다. 그리고조직적으로는게릴라밖에는없다. 그러나그결과는 99% 결정되어있다).

조직과그내부공격성

앞에서‘강하다는것은물리적폭력이상대보다우월하다는것’이라고, 누구나아는것을말했다. 그러나이당연한정리는곧상대측의구체적인대응 — 다시말해서인원과물량의조직화에의해서지극히간단하게전복된다. 그러니까폭력은조직에대해서는 (이쪽에서도조직으로대응하지않는한) 거의무력한것이다 (따라서조직이야말로현대폭력론의핵심이다). 그리고조직이라고하면전형처럼떠오르는정치당파, 분파주의(sect) 의예를들지않아도우선무엇보다도통일과단결이중시된다. 물론그것은규약, 당칙, 통제가성문화되고전체의합의와승인으로성립된다. 결코강제나지배를의미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극대중인조직조차도파벌이생기는것을피하지못하는것은왜인가. 더구나운동이매너리증화(化) 로정체되어꼭꼭도못하게되면, 금방노선문제로옥신각신하게되고그것이안으로의단속 — 사문(査問), 규탄, 나아가서골육상쟁하는내부투쟁이나분파투쟁으로나타나는것은왜인가 — 요컨대, 어떠한조직이라도그것이통일과단결을지향하는한언제든지내부투쟁의가능성을내재하게된다 (이제까지쓰여진사회운동사가거의모든운동의분열항쟁사에불과하다는것으로도알수있듯이, 그것은통일과단결이조직의내부공격성에의거하는특성임을밝혀둔다).

폭력의변질과전환

폭력이조직을의미하는것이되는바로그순간부터폭력은변질된다. 다시말해서, 인간적이기때문에동물적생명력이라고할수있는본래의생명력으로서의의를상실하게되는것이다. 그것은첫째로사또오군의경우에서본바와같은조직폭력대개인이라는노골적인우열의형태를취한다. 그러나그렇기때문에대체적으로멈추지않는다. 둘째로인원수대(對) 인원수 → 조직체조직으로전환한다.

³ 돈을받고주주총회에참가해대주주의앞잡이역할을하는사람.

⁴ 노동력을사고파는인력시장이나노동시장.

⁵ 생활하는곳이나삶터.

⁶ 서민들이벌이는축제같은곳에서변변찮은싸구려물건을파는노점.

⁷ 기로친사(ギロチン社) 사건에관련, 홋날나고야의오오야봉(대두목) 이됨.

부록 1. 지극히사적 ☒ 탈선적으로

입장과관계

애당초 “로프트플러스원습격을용서하지않는다……”라는이름에서뭔가내부투쟁같은싸움판이라고알려진다. 어느쪽이어떻게되든나와는그다지관계가없는남의일이다. 시민사회의일상적변두리에서일어난, 말하자면, 당사자들간의컵속의폭풍이지. 그런데그게또 ‘호기심에서라지만어째서당신이공동서명인이됐나’고물어보면, 첫째로, 이 ‘성명’에찬성해달라고한게다른사람도아닌가시마(鹿島) 군이었기때문에, 둘째로, 사건의전후사정이나시비가어떻든간에이경우대다수의 ‘억울한악한자를두고볼수없어서’라는취지에는찬성하니까. 셋째로로프트플러스원이라는재미있는술집의영업이이런일로재미없게되는건재미없으니까 — 결국이렇게 ‘남의일에참견’하면, ‘관계’라는것이이런데서시작해서깊은수렁에빠지게되는것이다.

악한자의폭력과비폭력

그러면여기서우선 ‘싸움은결과적으로힘센놈이이긴다’, 그리고 ‘승리를결정하는강함은상대보다물리적폭력이월등하다는것’임을까놓고말해둔다. 그래서사또오(佐藤) 군에대해서말하면, 가령그것이일대(對) 일의개인적싸움으로서 ‘폭력사건’이라면어느쪽이이기든간에나와는본래무관하니까내버려두면된다. 그러나그게아무래도모른척할수없게되는것은, 이를테면사또오군개인이한일에대한반응이전기파(戰旗派)¹ 또는어떤뜻을지닌사람들과의 ‘일대(一對) 조직(또는다수)’이라는형태의다음단계로나타났기때문이다. 그것은폭력의제1차질적전환이다. 말을바꾸면 ‘상대방이강하다’든가 ‘잘못하다간진다’고생각할경우, 보통악한놈은맞서싸움을걸어서는안된다. 감히말하면결국사또오군과같이 (그렇지만현장을보지않았으니까무책임한추측이되겠지만) 청중중의한사람으로강연중에빈정대는소리를지르거나야유하는전단을뿌리는따위 (이것만해도용기와다소의각오가필요하지만) 일지도모른다. 이것은폭력에서대결을

테러에대하여

그러면여기서, 이제금세기최대의정치과제가됐다고할수있는 ‘테러’에대해서얘기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단순히말하면, 테러는게릴라전단계에서대개개인의절박한심정에서시작한다. 예를들어, 지금팔레스타인에서전해지는상황 — 이스라엘병사들이가하는무법행위때문에일상생활은궁지에몰리고가족이나친구등이이유없이살해된다. 그러한상황때문에최후의최후라고생각하는사람, 목숨을버려서라도하는, 궁극적생명력이라고해야하는것도리어테러를감행하게한다 — 고말할수있을것같다. 그들은그들이생명을걸고행동한결과는보지도, 듣지도못한채일순간에끝난다. 자신이큰성과를회구했다하더라도결코그테러가피아(彼我)의입장을역전시키거나국면을번복시키는승패에크게영향을주는것이아니다.

게다가그렇게개별적인형태로나타난테러는때때로궁지에몰린저항조직의일개전술로, 저지되기는커녕오히려칭찬받는상황이일반화되고있다. 가령, 18세의소녀가자폭테러한보도에대해서우리들은도대체어떻게대처하면되는가. 여기서나는나의입장을밝혀두고싶다. 나는우선무엇보다도먼저소녀의입장에선다. 여하튼하나밖에없는생명을걸고자폭테러를감행하는이외에방법이없었던절박한소녀에대해서나에게는이런저런시비할여지가없다. 그사실의절대성에대해서그저머리를숙일뿐이다. 그리고폭탄에희생된사람에대해서도그들의불운, 불행을전적으로슬퍼할수밖에없다. 그리고나서그일과직간접으로연계된조직이문제가된다. 간단하게말하면그것은옛날전쟁말기에지원이라는이름으로몸으로부딪치는돌격법, ‘가미가제특공대(神風特攻隊)’를전술로택한일본군참모본부와같은점에서고어떠한이유가있다고해도긍정할수없다. 왜냐하면, 말할것도없이그러한전술로승리를쟁취할수없고만일그러한투쟁이힘을갖게되더라도그것은반인민적인강권적전쟁국가에의지향을더더욱강화하는것이기때문이라고만말해두겠다.

테러는명백하게폭력이다. 그것이최후의생명력으로나타날때어쩌면그것은진실한폭력그자체이다. 그러한폭력은단한번이라고하는한정적인조건에도불구하고사람들에게는그렇지만도않은데그것은왜그럴까? 팔레스타인의테러는아메리카나이스라엘에관련해서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나타나게될지아무도모른다는공포 — 두려움의상상력으로발전한다. 그뿐만아니라이것을어떤방법으로도멈추게할수없다는데서, 비폭력의심리적특성이오히려비폭력의 ‘힘’이라는것을깨닫지않으면안될것이다. 상상력은자꾸자꾸공포심을낳는다. 그렇기때문에반테러전쟁은자꾸자꾸테러를낳는다. 그리고그것에대한투쟁으로테러를저지하는것으로지금이야말로 ‘비전’은비폭력직접행동의초점이되었다고하지않을수없다.

¹ 일본의신좌익계파의하나.

Ⅷ. 비폭력직접행동이란무엇인가

생산노동 · 창조 · 유희

흔히직접행동이라고하면폭력에호소하는실력행사를떠올리고때로는폭력의동의어로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직접행동과폭력은아무런관계가없다. 사건을뒤져보면‘직접’이란“사이에아무것도끼우지않고접하는것, 다른것을통하지않고곧바로”라고되어있다.

우리들에게직접행동이란다른것을통하지않고, 자신의힘으로, 자기가필요한것을요구하는행동이다. 좀더얘기하면우리들이일상에서필요로하는것을간접적으로가아니라, 곧바로손에넣기위해서취하는행동이다. 그래서, 특히폭력적직접행동이라고하지않는한그것은폭력이외의모든방법이라는데서비폭력의직접행동이다.

더간단하게말하면우리들이일상생활에서필요로하는물건이라고할때의‘물건’이란, 예를들면식품으로대표되는생활물자일것이다. 그것을손에넣는다는것은그것을생산하기위한도구까지포함해서, 이경우헛갈릴것도없이, 물건을만드는일 — 생산이고, 그행동이란노동이다. 다시말해서직접행동의본질은우선첫째로물건을만들고그것을위해서노동하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생산과노동이야말로인류의역사를통해서인민만이짚어지고이룩해온, 인민만이할수있는인민최대의힘이다. 폭력이외의힘이다. 비폭력직접행동을단순한항의행동을위한전술이나마음가짐처럼생각할때가많다. 그러나비폭력직접행동이란, 그것은말할것도없이, 비폭력상황의일상이있어야만가능한생산과노동이다. 사람들이가정을꾸리고, 삶에필요한물건을생산하는가운데, 그러한힘은명료하게나타나서우리들의일상생활을이룬다. 당연하고별것도아닌발현그자체인것이다.

둘째로그것은생산과노동의결과를누리는것이고, 셋째로일상생활을즐기는창조활동으로서이른바노래, 춤, 축제등으로확대되는놀이이다. 직접행동이란주어진것을누리는오락만이아니라인민스스로가만드는창조행위이기때문이다.

는자유연합이다. 이를테면각각이취미동호적친목에서시작하는‘관계’, 그리고그것의연계의연계로언제든지헤어질수있는비폭력직접행동의자의성이야말로오히려연결된네트워크의의미라고할수있을것이다.

끝으로한마디만더. 한사람의무리(群)로, 그러한개인의이합집산의토대위에있는비폭력직접행동을우리들이극히당연한일상생활속에있는것으로새삼자각하고다시파악하면, 그러한시야에서우리들의일상은틀림없이크게변할것이다. 우리들이변하는그때, 마침내의사비폭력체제는흔들리기시작했다고말할수있지않은가.

그와그녀는때로자기의생산점과인연에관계없이시민운동에참가한다. 그러나자기의생활점 = 시민생활에서는서로연결되며타자와의최저한의필요관계로받아들여지고있다. 그것은각자가의식적으로생활점을시민사회를향해서열어나가는행위라기보다도오�히려생산점에서벗어나서익명화된개인으로서시민사회에섞여들어가게되는것이라고하는게옳다.

그러나우리들의생활점으로서의시민사회도시대의커다란조류와변화에, 당연히연하지만, 심하게흔들린다. 때때로직면하는현실적인정치과제에비추어자기의내부로부터도변화와변혁을하지않을수없게된다. 그리고그와그녀는어쩔수없이무관계의관계로서현실속에서자치관리의식을환기시키는모순적존재가되지않을수없게된다. 변화하는시민사회는옛날의시민노동자적체질을더한층잡민화(雜民化) 할것이다.

그것은과거의조직이나당파, 이데올로기나정치등과무관한이른바아나키로취미나기호에따르는개인적이고어느의미에서는무책임하고, 사정이허락하면가벼운마음으로“와”하고모여서움직이고끝나면각기산산이흩어지는무조직적(無組織的) 모임이다. 정체가조금도명확하지않고이합집산이순탄하지않은모임이라고해도좋다.

그것은지금적지않은젊은이들중에자치관리의경향 — 이를테면생산점과의거리를스스로유지하면서기업사회일반과다른생활을지향하는잡업자들, 정규직거부지향의반실업자군이나프리아르바이터들또는자원봉사자들. 그이름이꽤알려진, ‘아끼노아라시(秋の風, 천황제반대모임)’나‘다메령(だめ連)’등한때는끓어지고또어느때는부활하면서거품처럼생겼다가는어느사이에까지지는소수집단의파생, 시민도인민도노동자도그래서자기이외의아무것도아닌‘잡민’의식의출현인데안토니오네그리가이름붙인 Multitude (다중) 라고나할수있는것이다. 좀더얘기하면세계적으로는반세계화 ☒ 반자본주의의이름으로이를테면세계정상회의에각국에서모여드는수만명의잡다하고카오스적인그숫자의미하는것들이다.

그리고이러한움직임에공통된근저에커다란흐름으로서, 나는, 지금‘비폭력직접행동’이다양한형태로구체적으로움직이고있다고주장하겠다.

앞에서말한소수노동자는좀더시민운동과의접근이요구되지나라자크나사파티스타의구체적시사는틀림없이귀중한경험이될것이다. 더군다나시민노동자라기보다오�히려잡민으로, ‘잡민화’됨으로써더욱개별과제에대치하게되는여러운동, — 차별이나국가(國歌), 국기(國旗), 야스쿠니나유사입법, 장애인문제, 이스라엘의팔레스타인침공등헤아려보면수십가지도더되는 — 이러한문제를하나하나훑어낸채밑바닥에서일반화하는것이비폭력직접행동에다름아니라는것이다.

그리고각각의개별과제를과제로삼아서움직이지않을수없는잡민의잡민성을만들어내는것, 그것이바로비폭력직접행동이다. 다시말하면그것은무엇보다도조직으로써가아닌, 조직운동이아닌것을특징으로하는 — 아나키즘에서말하

자치와관리

우리들의생활은분명히비폭력적일상에기반을두고있다. 생산과노동, 기타는우리들의평온무사한사회생활의지속과불가분의관계에있다. 그것은본래생산과노동을위협하는것, 이를테면전쟁등의폭력과근원적으로대립하는것이다. 폭력은물리적 · 형상적 · 적극적 · 능동적 · 물량적 · 순발적이며서금방인식할수있다. 그과정도, 결과도잘보인다. 그러나비폭력은눈에잘보이지않는다. 추상적 · 정신적 · 심리적 · 지속적 · 수동적 · 소극적이고일상적이다. 그러니까아무일도없는상황일뿐, 의식하지않는한있는지없는지알수없다. 그래서“이게비폭력이다”하는것을누구도알아차리지못한다.

그러한비폭력은이미말한바와같이무엇보다도직접행동과결부될때비로소가시화되고우리들앞에힘으로나타나는것이다. 아무일도없는것으로있는비폭력은우리들의생명력의근원이며우리들의삶그자체의기반이되는힘이다.

그리고이를통해갖가지활동을만들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더명확하게말하면우리와이웃동아리들의교류관계혹은자치회나동네모임과같은것을포함한자치관리또는사회생활이랄수있겠다. 그런데서우리들은유사이래현대까지그자신이만들어온힘을자각하지못하고오�히려권력의지배를떠받침으로써이러저러한우여곡절을겪어왔다고할수밖에없다.

비폭력이생산노동일때그것이자치관리와결부된다는것은당연하다. 예를들면, 농민이법씨를심고익으면벤다. 그것은본래는내년을위해서씨를남기고식량으로저장하고기타필요한물건과교환하기위한것이였다. 그러한일을계획적으로종합해서스스로또는타자와더불어관리하고운영하는것이자치관리인것이다.

비폭력사회란, 단순히폭력이횡행하지않을뿐아니라, 자치관리사회로서비폭력상황을스스로의힘으로구현하는사회다. 그렇다면생산노동이자치관리와결부되지않을때그것은임금노동, 노예노동이아닐수없다. 비록그것이생산을한다해도사적(擬似的) 생산행위라고할수밖에없다. 그리고바로그것이국가가 지배하는의사비폭력체제의현실인것이다.

간디의소금행진

여기서비폭력직접행동을더구체적으로생각하기위해서간디가실행한소금행진을예로들어생각해보겠다. 그것은영국이인도농민의제염을금지하고소금을독점전매함으로써인민을많이수탈하려는소금전매법에서시작되였다. 간디는각지에서모여든농민을이끌고수십일간의데모행진을조직했지만다짜고짜로금지당하고탄압과투옥으로이어졌다. 그런데도행진은거리에서, 마을에서, 사람들이가세해서해안을향해나아갔다. 그곳에서해수를퍼다가스스로의손으로

소금을 만들었다는 것은, 필요한 것을 만들었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이것은 법을 어겨서까지 행진을 이어갔고, 소금전매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필요한 소금을 손수만듬으로써 직접적으로 국가의 법률과 대립하는 것이었다.

직접 행동이란 이처럼, 첫째로, 우리들 스스로의 손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손에 넣는 것이다. 소금이 필요한 농민이 당사자가 되어 직접 소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위를 한 당연성과, 무한대로 많은 해수에서 소금을 만드는 작업을 한 정당성은, 그 누구도 침해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데서 권력자의 무법을 부각시키고 그들의 무법성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생산하는 행위를 통해서 권력자와 인민의 관계, 생산자와 생산에 기여해서 수탈하고 낭비하는 자들의 자세까지도 부각시킨다. 이렇게 직접 행동은 생산노동 그 자체라는 점에서 생산관계의 진실을 명백하게 한다.

둘째로, 우리들이 자기의 개인 책임에서 스스로 행위한다는 것이다. 그가 소금 행진에 참가하는 것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결정한, 의지에 의한 것이다. 그것은 데모나 전매법 위반에 대한 권력의 탄압을 자신의 몫으로 받는 것이기도 하다. 결과를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는 장소에 자진해서 자신을 둔다는 것이다. 그 자신이 불합쳐 투옥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고 참가한다. 이렇게 직접 행동은 개인 책임을 명백하게 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이것은 자치 관리이기도 하다.

셋째로, 그것은 합법·비합법을 초월한 생산 행위이다. 행진에 참가해서 항의를 하는 것, 나아가서 그의 필요성에 따라서 소금을 만드는 것은, 정당성에서 법적 시비를 초월한다. 지배자는 반드시 위법을 문제 삼지만, 그러한 법은 그의 정당 행위를 벌함으로써 스스로의 불법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합법은 권력자의 명분일 뿐 결코 정의의 보증이 아니다. 직접 행동에 대해서 법률이 강권을 동원하면 할수록 그것은 법률 그 자체의 부정을 증명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된다. 합법·비합법은 우리들에게 전술적 고려 이상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직접 행동은 권력의 어떤 규칙과도 관련이 없다.

넷째로, 그것은 정치라고 하는 간접 수단을 일체 부정하고 배제한다. 길을 따라 바다로 향해서 걸어 간다는 것, 해수를 떠다가 소금을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는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자기의 소망을 달성하는 길이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직접적이고, 누구에게나 당연한 방법이다. 게다가 인민이 그것을 직접 만드는 수밖에, 그 누구도 소금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는 데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올바른 길이다. 그렇다면, 소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해도 그가 해야 하는 일은 정해져 있다. 그 일 외에는 모두 길이 멀고 불확실한 데다가 완전히 소망을 이룰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가령, 정치에 의존해서 데모의 규제를 완화시켰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이 그 자신의 행동에 의하지 않는 한 인민은 정부와의 대차 대조표 한 쪽에 빚을 지게 된다. 그뿐인가, 정치는 그들과 그들의 생산물 사이에 개입해서 경비를 사용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구전을 착취한다. 또 그뿐인가, 그렇게 해서 그에게는 언제나 정치꾼을 매개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 하도록 배후자가 붙는다. 우리들이 자기의 생산물을

만 존재한다. 따라서 자기의 일상을 의식적으로 비폭력 직접 행동의 위치로 밀고 나가서 생산점에서의 의사 생산 노동을 방기하는 노동자는 없다. 극히 소수의 노동자와 개인이 가맹한 합동 노동 조동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가 자본의 톱니바퀴의 하나로, 다시 말해서 사회 생활의 기점(基点)을 임금 노동에 두고 생산점을 축으로 일상을 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지만 역시 한편에서 생활자적 시민이므로 하루에도 몇 번씩 생산점을 이탈해서 노동자라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이 있다. 예를 들면, 일하다가 자리를 떠나서 담배를 피울 때, 점심을 먹으면서 중간지를 읽을 때, 술집에서 동아리들과 맥주를 마실 때 등. 그리고 휴식, 소비, 생활의 장으로서의 공간, 즉 거주지의 장과 그것과 연관된 생활점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노동자는 생산점과 생활점을 왔다 갔다 하는 왕복을 날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생활점은 그만의 장으로 외부로부터 거의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 휴식의 장에 불과하다. 휴식이라기보다 다시 그저 생산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도착점조차도 아니고 생산점 왕복의 반환점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활은 확실히 생산점을 축으로 해서 회전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점은 그에게 타자 — 정치 사회 환경과 결부되는 유일한 통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외적 생산점에서, 자기 회복으로서의 생활점을, 만약에 그가 적극적으로 의식했다 하더라도 그저 생산점에 의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큰 작든 도시 잡업 노동자나 프리아르바이터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의 생산점으로부터의 탈출은, 생산점과 생활점의 두 곳으로 찢겨져서 왕복하고 있는 자기의, 생활점에서의 자기 발견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시민 노동자로서의 의사 생산 노동을 객체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의미를 새로 발견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그것만으로는 시민 노동자는 자본의 진지 — 생산점을 내부에서 허물거나 탈취하는 투쟁으로 쫓겨할 수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 시민 사회에서 나온 시민 운동이나 그룹이 다양한 모습으로 시민 노동자 앞에 등장하게 된다.

시민 노동자에서 잡민(雜民)으로

시민 운동은 본래 우리들의 생활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기반은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생기는 감정적 ☒ 이해적, 공동성 ☒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시민 운동에 접속하는 계기는 사회 생활 중에 자기의 이해나 생활 감정의 공동성의 인지와 관계의 공감성에서 생긴다. 그러나 그것의 모양이나 내용, 과제 의 고착음, 대상의 구별 등, 실로 천차만별이다. 관계의 설정도 임의이고 자의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X. 한사람의무리 (群) 로

생산점 · 생활점과시민노동자

지금일반적으로시민그리고이와동일하게쓰이는노동자라는개념은, 국가와 자본에생활의모든것을내주고있으면서때로중산계급의식하에서한결같이 (?) 노동하는도시또는그주변의근로자나샐러리맨그리고시간제근로자등주부일반에대한지칭일것이다.

여기서는일단‘시민노동자’라고부르기로한다. 시민노동자는생산점과생활점이라는두개의장을축으로나날이왔다갔다하면서일하는대다수의사람들이다. 그와그녀는날마다일터로출근하고무엇인가‘상품’을만들기위한생산공정에서일하고있다. 틀림없이그것은생산노동이고, 만들어낸‘상품’은그러한사람들의노동이있었기에있는것이다. 그런데도그것은결코비폭력직접행동의생산노동이아니다. 말할것도없이, 완성된‘상품’은생산에관련된노동자들의것이아니라 처음부터자본의것이다. 만약에그것을필요한다면임금에서얼마의돈을꺼내서대금을지불할수밖에없다. 그는다만임금노동을하고있을뿐이다. 그러면서그에대해서조금도의심하지않는데서시민노동자는억지로시민생활의충족또는만족을얻는다.

그러한시민노동자의생활의장으로서시민사회는, 시민생활의일상에사적(私的) 개별사항의현실성으로존재한다 (그것과대조해서정치사회는관념적 ☒ 공적(公的) 보편사항의추상성으로서시민생활과격리되어성립한다). 즉, 시민운동은정치국가와시민사회의분열이라는모순, 본질적으로생산력과유통관계의 틈에서파생되는여러가지상극을개별적으로해소하려는데서거의체념하면서때때로분출되는것으로서있다. 이운동은시민개개인의공통이해또는문제의식에 기초를두어당연히조건적이고부분적이고한계적이다. 설령운동이확대되고앙양된다해도시한적, 국지적인것으로멈추고다른부분과결합되거나누적적발전이거의없으며쉽게반권력투쟁이되지않는다.

말을바꿔서, 이른바노동조합은산하의노동자를규합해서한결같이생산점을지킴으로써이제는조합원의조출한물질적욕구의충족을자본과국가가‘풍요롭다’고말하는데말겨버리고완전히관리기구속에있다. “잃을것은사슬뿐”이라는, 그자체로변혁의요인을내재한노동자는예전이나지금이나마르크스가말한부정적존재로서의 — 극빈층, 룸펜프롤레타리아또는밀입국한외국인노동자들속에

사용하는데그처럼귀찮은방법이필요할까. 이렇게직접행동은정치가쓸데없는게재물일뿐아니라착취의방법으로있다는것을명백하게한다.

다섯째로, 그것은인민의존재양식이고그자체로생활과밀착된싸움이다. 그행위는생활그자체로그의실력을보여주고그러한실력의행사야말로인민의유일한거절이라는것을자각하게한다. 소금행진을하는것은그것이나날의생활과같은의미를지녔기때문이다. 그것은삶이고, 살기위해서그때그가할수있는최대의실력을그의육체 — 생활을가지고 — 로실행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인민에게직접행동이란타인에게물건을빼앗는것이아니라, 스스로물건을만드는것, 그렇기하기위해서방해를무시하는것이다. 이렇게직접행동은방해에대해서는실력행사로서생활의의미를명백하게한다. 여섯째로, 그것은나날의생활 — 생산과관련해서자립적으로나날의생활을관리하는것이다. 우리들의일상은생산의장소와도구, 원료를자신의생활을위해서확보하고물건을생산하며나아가서올바르게분배하는일이다. 방해와협박, 검거와투옥에도불구하고소금행진이엄연하게계속된것은참가자개개인이자주적 · 자립적이며전체로서행진을자기의책임에서조정하고관리했기때문이다. 그것은사회생활의질서가사실은권력에의한통제적법규의결과가아니라본래부터인민이가지는자연스러운기능에있다는것을증명한다. 이렇게직접행동은인민의속성으로서의비폭력과결부되어그것이매우능동적인힘이라는것을명백히보여준다.

현재우리들이생각하고있는생산과노동은, 사실은자기의노동력을상품으로서자본에파는것에불과하다. 그렇게해서얻은대금을중개로서간접적으로밖에자기가필요로하는것을얻지못한다는데서우리들의생산노동은명백하게의사화되어있다. 바꿔말하면, 직접행동은본래의비폭력상황하에서만그러하고사이비비폭력체제하에서는그것과대응하는의사생산활동이외에아무것도아니다. 마찬가지로현재체제내에서의비폭력은전체가의사화 ☒ 왜소화되어의사직접행동이나권력자신의폭력행동밖에있을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이것은대단히중요한의미를갖는것이다.

이처럼모든것을체제내에서강탈당한상황하에서이루어지는우리들의싸움은정확하게말하면직접행동그자체로서가아니라우선비폭력직접행동의회복과탈권의투쟁이다. 소금행진에서실행된채염은일상적인비폭력상황하에서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것이아니다. 사실은상징적인것, 그것이다. 소금행진에들어있는매우침예한정치투쟁은 — 우리들자신을위한, 생산노동을탈환하기위한더욱엄격하게말하면비폭력직접행동‘탈환’의투쟁이될것이다. 그것은자신을노동소외에서되찾아내서의사생산노동을자신을위한것으로만들기위한투쟁이다.

IX. 비폭력직접행동, 몇가지문제

소수파의노동운동

노동운동은단순히자기의노동을착취하는자본이나그를구성하는사회기구에대한투쟁만으로끝나지않는다. 자기의의사생산노동, 그러한의사를가져다주는의사상황에대한투쟁이다. 비폭력직접행동의탈환이다. 솔직히말해서, 될수있는한일하지않고벌지않는주의다. 자기가하고싶고또한할수있는것만한다. 그렇게일하는방법을추구하고연구하고생각하는것을즐기고기쁨으로여긴다. 그렇기때문에투쟁이란노동운동에서의단순한임금상승이나조건개선투쟁을의미하지않는다. 이것은노동에서의창조적인투쟁이다. 그리고또이러한투쟁은종래의조합운동과다른도시의잡업(雜業) 노동자나프리אר바이터등‘미조직(未組織)’의유동적노동자에의한움직임 — 노동의거부와도통하는것이다.

예를들면지금우리들이‘비전(非戰)’이라고할때그것은군수산업에서의노동이라면즉시생산점의방기(放棄)를의미하지만그이전에우선위장태업, 업무불이행, 작업실수다발, 결국에직무거부등갖가지형태의경위가우선있고나서마지막으로부당해고에대한재판으로이어지는, 자기자신의처신과존재방식을만드는것이다. 결말에가서구조조정이나실업에도불구하고생산점을버리거나떠나지않고집요하게최후까지투쟁을계속하는어쩌면자기파멸적으로보이는소수노동자들의존재야말로여기서말하는노동운동인것이다.

한편, 자본가들은의사비폭력체제하에서무엇보다도자본의존립기반의안정과유지를필요로한다. 그러한의사가허물어지는것은사회적인혼란과불안이일어난다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소수파들의움직임은그자체가권력공격의의미를갖는다. 그러나당연하지만이러한소수파노조의투쟁도권력의탄압에봉착하지않을수없다. 예를들면, 생산점에서만든자치공간에권력이치고들어왔을때당연히그곳에는피아간의폭력적공방의형태가출현한다. 그것은권력이쓰고있는의사비폭력의가면을벗겨그들의정체를더욱명백하게해서일견폭력적으로보이는투쟁이나타나게될것이다. 그러나그것은직접행동의부활 — 생산노동탈환에서본질적으로비폭력을지향하는것이며폭력투쟁과동질의것은아니다. 의사비폭력체제의붕괴과정에대응하는인민의반폭력(反暴力), 다시말하자면생명력으로서의힘이한정적으로나타난것이다.

여기서비폭력직접행동이그대로그의투쟁이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일견과격하게보이는행위는그에게는전혀아무런지도않은당연한행위가틀림없다. 그리고비폭력직접행동이란보베씨뿐만아니라본래부터우리들에게도그런것이다 (이러한비폭력직접행동은그시점을조금만바꾸면여러가지실례를얼마든지들수있다. 이를테면원전반대운동에서시부루크에서전원이혼련을마치고 1700 명이일제히부지내에연좌행동을전개하여체포거부작전이나서는등, 우리는운동의가능성이무한함을간과하고권력을안도하게하고있다고도하겠다).

운동이라는 면에서 말하면 라르자크에서는 개별적이며 각자의 과제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에 입각한 공동성에서 시작된다. 청년, 부인, 노동자,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에콜로지스트, 망치와 낫⁴, 유기농업자 등이 당파, 정당, 조직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 — 개인의 입장으로 그것이 우선 비폭력 직접행동이라는 공통 인식에서 성립된다”

그리고 2 년 후 파스트가 서거했다는 풍문을 들은 후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보베는 나에게 처음 접하는 전혀 미지의 사람으로, 처음에는 그저 라르자크라는 직함을 보고 깜짝 놀랐을 뿐이다. 2002 년 3 월 29 일 신문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에 침입하여 공격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수일 후에는 의장청사까지 포격으로 파괴하는 바람에 아라파트가 집무하는 의장실까지 포위하고 수도, 전기까지 끊고 식량 공세를 꾀하는 등 무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서 — 비폭력을 표방하는 수십 명의 국제 시민 파견단이 — 이스라엘군의 작전의 틈을 타고 식량 등을 가지고 의장청사에 돌입하고 그대로 그의 장실에 있으면서 ‘인간 방패’의 장과 측근들을 포격으로부터 지키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그들 뜻있는 이들 속에 마침 라르자크의 보베라는 이름을 발견한 것이다. 그렇다면 30 여년간, 아직도 라르자크는 건재하고 비폭력 직접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우선 그것에 주목했던 것이다.

‘인간 방패’의 행동과 전술에 대해서는 그 후에 간행된 『팔레스타인 국제 시민 파견단의 장부 방위 전일기 (パレスチナ國際市民派遣団議長府防衛戦日記)』(太田出版)에 자세하게 실렸다. 그 책의 저자 대표로 조제 보베의 이름도 나와 있는데, 그 서문을 조금 인용하면, “이스라엘 시민이 있는 한 가운데서 작렬하는 인간 폭탄은 무서운 행위이다. 그러나 수일간이라도 팔레스타인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곳에서 몇 년간이나 절망이 재생산되고 있고 폭력이 대규모로 행사되고 있는 것을 반드시 지적할 것이다. 테러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테러가 다른 테러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 활동의 일단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다시 11 월 11 일 아사히 신문 조간에 돌던 「재수감에서도 투쟁, 유전자 조작에 항의 — 프랑스 활동가 보베씨」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실려 있었던 것이다.

일본을 방문한 프랑스의 세계화 반대 활동가 조제 보베씨 (49 세) 가 인터뷰에 응하고 유전자 조작을 위한 벼를 뽑아 버린 사건에서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이 5 일 연도가 예견되는 것에 대해 “내가 수감되더라도 투쟁은 형무소 밖에서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 자본계열의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의 신축 건물에 해체한 행위로 수개월의 금고형을 복역한 보베씨는 대법원 판결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다른 사건과 합쳐서 14 개월 수감된다. 보베씨는 “합법성보다 운동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생명력과 사회 폭력의 가장 다른 점은, 후자가 그의 폭력 조직 기구를 자기 긍정적으로 더욱 더 심화 ☒ 확대할 수밖에 없는 데 반해서 전자의 폭력은 한정적이고 조건적이며 상황적이며 항상 비폭력으로 수렴되는 반폭력이라는 것이다.

되풀이해서 말하면,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과 인민의 반폭력이 대항할 때 일견 똑같아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직접행동의 시점에서 볼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이질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헛갈리는 것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그 행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산 노동과 관련되었는지, 또 생산 노동의 확보와 결부되어 있는 지이다.

앞서 폭력은, 투쟁이 일시적으로 상황을 타개해도, 마침내 사람들의 버림을 받는다고 말했다. 직접행동은 한정적 ☒ 조건적 ☒ 상황적으로 나타난다 — 이것은 투쟁이 경직되지 않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다양한 게릴라의 형태를 취한다는 것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게릴라는 폭력 투쟁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확실하다. 즉, 반폭력적 대응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갖가지 방법으로서 창조적인 투쟁을 창출하는 것이다. 투쟁이란 종래의 비폭력이나 폭력의 개념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운 데서 일어날 것이다. 직접행동이 생산 노동뿐만 아니라 창조 활동이라는 것은 이 경우에 특히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기존의 개념을 깬 새로운 투쟁 — 비폭력 직접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투쟁이 대응의 상대성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힘이 되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폭력의 강약에 의해서 승패를 결정하지 않는다. 기존의 비폭력 개념은 흔히 기성의 폭력 개념과 밀착해서 오히려 새로운 투쟁 형태의 발상을 방해했다. 강령도 규약도 없고 대표도 두지 않는 비조직적 조직의 일반화, 개별적이고 다양한 중한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부분끼리 붙었다 떨어졌다 자유자재로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모임 — 그러한 잡민성의 구경꾼적 방종이나 무뎠던 적성격이야말로 힘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체 등의 의미

앞에서는 이를테면 노동 조합 ‘연합’ 등이 상징하는, 작금의 노동자와 노동 운동 일반의 거의 절망적인 상황을 뇌리에 떠올리면서 일부의 사람들에게 있는 가능성으로 썼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더욱 절망적일지도 모를 ‘공동체’의 아주 작은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해서 써 두고 싶다.

예를 들어, 70 년대 경 조금 문제가 된, 소규모지만 각지에 파생했던, 지금은 겨우 두 세 개만 남은 ‘공동체 운동’의 현재는 어떠한가. 그때를 돌이켜 보면, 당시의 이러저러한 공동체 건설의 시도는 일상 생활의 차원에서 스스로 비폭력 공간을 창출하려는 것이었다. 무의식하에서라도 비폭력 직접행동의 연속적 일상화이고 일상 생활의 비폭력 직접행동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⁴ 사회주의 세력.

1) 그것은무엇보다도체제내의상품화된노동에대해서비금전적인노동이라는점,

2) 공동체의창설과운영이자치관리의실천이라는점,

3) 게다가생활의공동성을통해서개인의일상영위를스스로가엄격하게따지는자기관리의장이라는점,

4) 생산이노동의결과뿐만아니라스스로가찾아간자신의손에의한창조의기쁨이고누림이라는점에서그려했다.

그러나또그것이무엇보다도비폭력직접행동본래의의미를영위하는것인데도공동

체측에서누구도말하는이가없고그것을알지못했다는점이다. 그리고그이유

의대부분은순전히공동체그자체안에있었다. 즉,
1) 공동체는농경등공동노동을통해서내실을만들어보자는것이다. 그것을위해서처음부터일상생활차원의문제가집중돼서미시적인소(小) 상황문제의처리에쫓겨서비폭력직접행동적시점이방기되어버렸던것.

2) 예를들어공동체의발기가무상노동과같은자본과의공존을거부한것이었다해도, 그것이개인생활의공동체로의탈출이라는사회와의단절로완결돼버린다는것.

3) 공동체를외부의정치적상황에서지켜내고유지하기위해서외부와와의접촉창구를될수있는한한정시켜버리고탈사회적폐쇄성으로전화시켜버린것.

여기서이항목에관련해서반기지투쟁등에대해서약간덧붙여두겠다. 예전의기지투쟁이라고하면지금도오끼나와, 산리즈까¹, 칸사이공항², 히주우다이³…… 등과각현장에서의투쟁이떠오른다. 이러한기지투쟁은권력의토지물수나토지수용에대해서토지를내주지않으면서생활을지키는데서시작했다. ‘연좌’가아니라이른바‘입주’같은것이다. 그것은공간적장(場) 투쟁이고동시에좀더시간(일상생활) 적인지속투쟁이며, 말하자면그두개의분리여부가비폭력직접행동의초점이라고할수있다. 그것이가장잘나타나는것은, 이를테면기지내의경작이다(구체적으로말하면현재광음이며리위수십미터를비행하는매수예정토지에있는산리즈까의순환농장과같은것인데, 그것은존재자체가비폭력직접행동이라고하지않으면안된다). 그것이그처럼우리들의일상에큰의미를갖고있는데도현실적으로아무런문제가되지않고운동이라는것의내부에서무시되고있는것은왜인가.

그것은지금까지이러저러한형태로이미나타나고있는비폭력직접행동을총체로서파악하고현재의시점에맞춰서다시미래를전망하는비폭력직접행동론이

제시되지않았기때문이다. 그것을자각적으로만들어내는노력이전혀충분하지않은것이다.

라르자크공동체의보배, 기타

여기까지 썼을때라르자크공동체의보배가일본에왔다는것을알았다. 라르자크는프랑스중앙부의협곡과석회암의침식이이어진고원지대에있으며로크포르치즈나목공예품을특산품으로하는농촌공동체다. 1970년대초부터비폭력직접행동을실시하고프랑스육군의훈련지확장반대운동을전국으로확산시킨것으로알려졌다.

그들의방법도특이한데국민중남자에게필수인군무수첩의일제파기운동에서시작하여파리에펠탑밀의양떼데모, 또는 2000두의양떼로현의회봉쇄작전, 립프시게노동자와의공동투쟁대파업, 트랙터 70대에의한공장내행진, 용수로를없애려고한도로공사에대한노동돌격(연대 X 합작) 수로건설, 공병대사무소에쳐들어가서측량서류와불용도면의파기(22명의행동지원자투옥), 전국에확대된라르자크위원회(GFA)에의한모금에서확장예정지의 4분의 1, 1,515헥타의입수, 신규입촌자와지원자에대한농장개방, 500두를수용하는염소우리완성, 이주자의군용지점경작, 신규입촌자를위한학교만들기, 낙하산강하부대를포위하기위한폴베기작전과이동중인군대차를운전해서멀리떨어진곳으로추방하기, 수확제에전국에서모인 10만 3000명등등. 분방하면서도언제나의를표를찌르는파격적인비폭력직접행동의전술로이름이알려졌다. 당시촌민은평상시 500명에서 1000명이라는말도들었다(각집마다자립해서, 그때그때출입이었다).

그런데여기서당시라는것은벌써지금부터 20년도더된 1980년경의일인데그것은라르자크공동체의창시자란자델파스트가산리즈까의공동투쟁을위해서일본에왔고오오사까의우리아지트살루톤에도묵어간일이있었기때문이다. 파스트는그때이미 80세, 젊었을때인도에가서직접간디에게오래사하고귀국후에라르자크에서공동체를시작했다고한다. 산리즈까에대한파스트의감상은지금까지나의뇌리에깊은인상으로남아있다.

산리즈까는라르자크의우리와과완전히같은투쟁을하고있다. 라르자크에서는그것을비폭력직접행동이라고부른다. 그렇게의식하고하는투쟁이다. 그런데산리즈까는자기들자신의투쟁을비폭력직접행동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그렇기는커녕더욱무장투쟁으로돌진하려는방향에서로잡혀오히려폭력투쟁으로비난받고있다. 폭력이아닌데그게비폭력직접행동이라는자각이없다. 확신도없다. 그것이최후의결정타를날리지못하게하고있다. 비폭력직접행동은당연한일상의보통행동이지만그것을비폭력직접행동이라고자각하는것으로힘이된다.

¹ 토오코오나리타공항건설반대투쟁을지칭.

² 오오사까인공섬공항.

³ 큐우슈우의군사격훈련장.